(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766 1982년 3월 8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March 8, 1982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MAR 16 1982
[illegible]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illegible]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온타리오주의 버타·윌슨판사

여성대법관 탄생

107년 남성아성깬 여권주의자

캐나다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법관이 탄생했다. 1875년이후 107년간 남성법관만이 임명되던 관례를 깨고 캐나다 대법원은 4일 온타리오주 항소법원(Court of Ap eal)버타·윌슨(58)판사를 새 멤버로 맞아 들였다

윌슨판사 임명을 발표한 장·크레치엔 연방법무상은 연방대법관이 될 충분한자격을갖춘 법관으로 윌슨여사가 임명됨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일부남성 법조계 인사들은 그가 여성이므로 비슷한 자격을 갖춘 남성법관들보다 유리했다고 꼬집었다.

윌슨여사 대법관 임명에 대해 트루도정부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작년에여성법관을 임명한것을 본따 정치적으로 여성 유권자의 점수를따고 싶어[illegible] 조치라고 일부 인사들은 비난[illegible]

지난2월 75세나이로 정년퇴직한 로날드·마틀랜드 대법원 판사의 후계자로사스카츄완주나 온타 리오주 법관이 임명될 것이라는추측이 강력히 나돌았었다.

미국여행중 대법관에 임명된 버타·윌슨판사는 1923년 스콧틀랜드에서 태어나 스코틀랜드의 아버딘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교사를 원했었다.

연합교회 목사였던 존·윌슨씨와 결혼한뒤 20대초반 1948년 캐나다로 이민왔고, 28년전 32세때 목사의 부인으로서 댈후지 대학의 법과에 입학했다.

슬하에 자녀가없는 윌슨여사는 남성우월 주의자들을"돼지"(Male Chauvinist Pig)라고 부르는 여권옹호주의자로, 그녀의 임명에대해 캐나다 여성단체들은열렬한 환영을 표시했다.

윌슨판사는 20년간 동거생활해온 여인에게 재산의반을 주라고 판결한 로사·벡커사건과 10살된 여자아이가 온타리오주 소프트볼협회에서 남자아이들과 함께 소프트볼을 할수있도록 데비·바조사건등의 판결들로 유명하다.

법조문 문귀보다는 거기담긴 정신을 보다 중요시 한다는 윌슨판사는 이로써 캐나다 사상58번째 대법관이 됐다.

◇캐나다 사상 최초의 연방대법원 판사가된 버타·윌슨(58)판사.

금값 $350선 좀더 내릴 전망

(런던=영국)유럽지역금값이 4일 2년반이래 최저인 온스당 350달러(미화)로 떨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값이 300~325달러선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예견했다.

국제금값의 하락은 미국의 높은 이자율, 경기후퇴, 세계적인 인플레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제2차 정기총회 동국대학동문회

동국대학교동문회 (회장 정규영)는 오는27일(토)하오6시 토론토한인회관에서 제2차 정기총회를 연다.

이날모임은 만찬과 댄스파티도 겸한다.

최홍희씨 미국서 귀가

"내주중 강력히 대응"

대통령살해음모사건의배후인물로 자주 인용된 최홍희씨는"내주(8~14일)중 모종의 강력조처를 취할것"이라고 측근자가 4일 밝혔다.

이 측근은 최씨가 그간 언론등으로부터 오해를 받았으므로, 기자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자신을 해명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최씨가 이 사건 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신문보도이상의 것을 알지못한다"고 말하면서 최씨가 "결코 신문기자들과 인터뷰같은것은 하지않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26일 워싱톤을방문, 이곳서 거주하는 최덕신씨(전 외무장관)등을 만난후 필라델피아를 거쳐예정보다 빠른 2일 미시사가의 자택으로 돌아왔다.

"최씨는 출국전 여행목적지등을 연방경찰에 미리 알렸다"고 이 측근자는 말했다.

캐나다 헌법안 인가위해 영국여왕 캐나다 방문

(런던)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은 캐나다가자체헌법을 갖게되는것을 축하하기위해 곧 캐나다를 방문한다고 4일 버킹엄궁이 발표했다.

◇엘리자베스 영국여왕

버킹엄궁 대변인은 여왕의 캐나다 방문일자는 영국의회가 캐나다안을 최종통과시키는 시기에 따라결정될것이라고 밝혔는데 소식통들은 현재 제3독회를 끝낸 캐나다 헌법이 3월말경 통과예정으로있어 여왕의 캐나다 방문은 그 직후가 될것이라고 추측했다.

앞이마를 재생해 내

어린이병원팀 또 개가

세계최고의료진과 시설을 자랑하는 식킬드런(어린이)병원이 또 하나의 개가를 올렸다. 의사 이언·먼로(43)씨가 이끄는 수술팀은 4살짜리 이드리언· 새라지아군의 갈비뼈등에서 뼈들을 떼내 상해가는 그의 이마를 감쪽같이 재생해놨다.

에드리언군은 80년6월 2살때 자전거를 타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지면서 이마에 두개의 [illegible] 주위부분이 점점 곪아가 결국 두개골 앞부분을 잘라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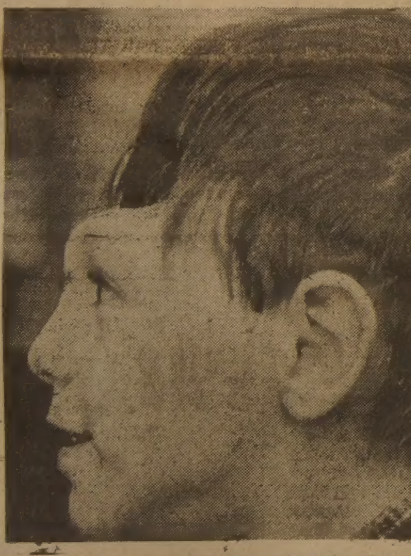
금년1월중순 수술을 집정한 먼로의사는 폭11cm, 길이16cm의 이마를 만들기위해 우선 이드리언군의갈비뼈6개와 두개골뼈 일부를 떼냈다. 의료진은 떼낸 뼈들을 구부리고 펴고해서 "울타리 엮듯이"철사로 엮어 이마모양으로 만든다음 피부를 덮어 완벽한 이마를 재생시켰다.

◇이드리언군

먼로의사는 1년내 이드리언군의 갈비뼈를 재생시킬 것이며 그가 1년동안만 하키 헬멧(모자)를 쓰고다니면 흔적없이 완쾌될 것이라고 말했다.

뼈를 이어만든 그의 두개골은 자연적인 성장을계속하며, 철사는 빼내지않아도되는 특수철사이다.

먼로의사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과 토론토대학 에서 수학한 북미유일의 두개골및 안면 전문 외과의로 어린이병원과 서니·브룩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수술받기전의 이드리언군. 앞이마가 폭패어 있다.

오늘의 예금금리 2월22일현재

종별	기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일	14.5%	12.5~13.5%
	200만불 돌파기념 특별봉사이율 봉사기간 : 3월20일까지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유학생을 상품 취급

사우디, 상품수입 대가로 제의

사우디·아라비아는 온타리오 상품을 수입하는조건으로 온타리오내 의과대학, 및 공과대학에 유학생을 보낼 것을 제의했다.

사우디는 5년간 25명의 국비장학생을 온타리오에 유학보내고 대신 온타리오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교육기재를 수입할 예정이다.

북한측 부인성명

"대통령살해음모와 무관"

(서울5일=연합)북한정부는 4일발표한 성명문에서 토론토에서 시작된 전대통령음모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당(공산당)기관지노동신문에 게재된 발표문에서 최홍희, 최중화및 북한동조자가 관련됐다는 이번사건에대해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최중화가 80년 평양에왔었다고 말한 이 발표문은 한국정부가 요구한 최의캐나다당국 이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교민의 벗
[illegible]
구독은
533 2361

금주의 행사 3월8~14일

11일(목)하오7시 베타와이즈멘즈클럽주최 강연회(이민생활 보험지식)(연사 백용빈)
곳 : 세인트클레어 한인Y회관(15 Robina St.)

12일(금)하오7시 수학경시시상식(한인대학생회주최)
곳 : Library Science빌딩 205호실 (130 St. George St.)

12일(금)하오8시 재캐나다 한인축구협회 정기총회
곳 : 토론토(클린톤 하우스)

13일(토)상오9시 칼빈신학교 개강식
곳 : 252 Bloor St. W. Tor. #3-105

14일(일)하오2시 문익주 피아노 독주회
곳 : St. Lawrence Hall(27 Front St. E.)

14일(일)하오3시 천주교노년회주최 강연회「젊어지는길」(연사 이석현)
곳 : 세인트·폴성당(83 Power St.)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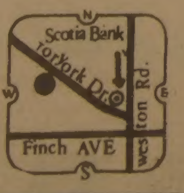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W. TORONTO.ON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양약과 식이요법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당뇨병의 희소식!!
당뇨病으로 고생하시는 교민들께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금번 폐점에서는 한방의 비약인 漢糖秘方을 수년간 탐문끝에 최초로 독점 입수하는데 성공했읍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현대의학에서는 당뇨病이 불치병으로서 치료약은 없고 병세가 극심하지만 않도록 음식을 가려가며 조절하기위한 약을 매일같이 평생동안을 고생스럽게 투약해야하는 실정입니다.
폐점에서 입수한 漢糖秘方은 끝도없이 복용해야하는 조절약이 아니라 2個月간 복용으로 시원하게 완치되는 치료약이란점에서 남모르는 노력을 수년간 기우린 결과 얼마전 당뇨病으로 여러해동안 고통스러워하시는 교민 한분에게 소량을 우선 공급해 드렸던 바 完治되는 효과를 보았읍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내용과 완치기쁨을 누리고 계신분과의 치료과정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도록 해드릴수도 있읍니다.
미도파 백화점 한약부
☎ : 536-1692, 1999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0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중앙은행금리 대폭인상

달라보호, 투자유치위해

(오타와)캐나다 중앙은행은 5일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중앙은행금리를 지난주 14.83%에서 15.12%까지 대폭적으로 끌어올려 캐나다달러의 대미화 환율은캐나다 1달러당 미화82.27센트로 오르게 하는등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중앙은행금리는 금년들어계속 올랐던 미국금리와 상관없이 내려가기도 했으나 정부는 달러가치를 보호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위해 미국금리에 비례해서 캐나다금리를 조정하기 시작했다.

5일발표된 시중은행의우대금리는 아직도 16~16.5%선이나 곧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중앙은행은 캐나다의 물가상승율이 미국보다 높은데다가 금리가 낮으면 외국자본을 끌어들일수 없으므로 금리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의 인플레이션 율은 미국의 8.4%보다 훨씬 높은 11.3%이다.

캐나다의 81년도 용역, 상품수입을 포함한 경상수지 적자는 66억달러에 달했다.

이와같은 적자폭은 외국자본 도입으로 대체해야하며 낮은금리로 인한 달러가치하락은 오히려 캐나다자본의 국외유출을 초래한다.

캐나다는 자유외환관리정책을 유지, 투자가들이자유로히 자본을 투자또는인출할수 있다. 금년들어 한때 17%선까지 올랐던 미국주요은행들의 우대금리는 이번주 16.5%로 약간 내려 캐나다와같은 수준을 유지하고있다.

정부는 캐나다의 금리를 미국보다 약간 높게책정, 높은 이자를쫓아 움직이는 국제유동자본을 유치한다. 이렇게해서 캐나다 달러의 수요를 증가시켜, 투자를유치하고 투자된 자본을 보호하는 정책을 써왔다.

캐나다 외환은행의 이수신전무는 5일"금리는 인상됐으나 요즈음같이 미국, 캐나다의 금리가 오르락내리락할때 은행에서 돈을빌릴경우 고정이율보다 유동이자율(Floating Rate)을택하는것이 좋다"고 말했다.

버스표사건 일단락

최 • 이씨 토론토로

82년4월6일 토론토 버스표 위조혐의로 한국서 복역중이던 교포3명중 최수호, 이춘열씨는 지난2월초 석방되어 이미 토론토로돌아왔고, 조영구씨만 4월10일 출옥을 기다리며 복역중이라고 5일 메트로 토론토 경찰이 밝혔다.

메트로 경찰의 사기전담반에 의하면 이들이 메트로경찰에의해 재입건될 근거는 없으므로 버스표 위조사건은 수사가 종결됐다고 말했다.

조씨등 3명은 작년초 TTC표를 한국에서 위조인쇄한 혐의로 1년6개월이하의 징역형을 치르고있던중 감형조치를 받았다.

심령대부흥회

조천일목사 설교

토론토빌라델비아장로교회(목사 김경진)는 LA빌라델비아교회 담임 조천일목사를초청, 오는 18일(목)~21일(일)4일간 저녁7시 동교회(7 Gretna Ave)에서 심령대부흥회를 연다.

신과 40명 모집

칼빈신학교

토론토의 칼빈신학교(교장 제화삼)는 오는 13일(토) 상오9시 252 Bloor St. W. #3−105에서 개강한다.

한편 82년 1학기 신입생(신과)모집도 이날로 마감하며, 모집정원은 40명이다.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產을 위협 합니다.

교민동정

◆이훈모(부동산업자)=2월말 사무실을 옮겼다. 새 주소는 57 Cummer Ave. 전화 : 225−1204

◆김유수(Sue Kim 사교댄스강사)=렉스데일 여성클럽센터에서 리더로 활약중이다. 렉스데일 클럽에서는 교육, 건강, 사회, 가사등에관한 상식을위해 전문분야 사람들을 초청해 연설을듣고 함께 토의함으로김씨는 영어실력 향상을원하는 여성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한다. 회비 무료, 베이비시터 도 무료로 매주(목)상오9시30~11시 30분까지, 장소는 Green Home 쥬니어학교(10 Jamestown Cre. 키프링×알비온) 전화 : 742−4208

◆최동호(연합교회 장로)=지난2월22일 다운타운 퍼스트·캐네디안·플레이스지하상가에 고급 한국음식점을 개업했다. 한국음식과일본음식을 취급하며 영업시간은 아침8시부터 저녁6시까지, 토, 일요일은 문을닫는다. 캐나다외환은행이 있는 제2캐네디안·플레이스와 지하로 연결된 이 상가는 킹·스트릿과 요크·스트릿과 베이·스트릿 사이의 킹 스트릿에 있으며 금융인등 사업계인사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기와 지붕을 얹은 이 음식점은 실내장식가이며 건축설계사 인조더남씨가 내부 디자인을 맡았다.

머리는 쓸수록 좋아진다

大腦신경세포 감소되면 지능 低下
20세이후 하루평균 10만개씩 死滅

50代에 가장 심하고 점차 감소율 줄어

사람의 뇌의 무게는 20세부터 30세에 이르는 동안이 가장 무겁다. 그리하여 80세가 되면 17%가량 감소된다. 누구나 25세가 지나면 머리의 노화가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신경세포의 수효가 감소되는것과 뇌의무게가 감소되는것과는 일치된다고한다.

뇌의무게와 지능과는 반드시 병행되는 것은 아니다. 천재의 뇌의 무게는 일반사람보다 무겁다지만 천재작가 아나톨·프랑스의 뇌는 1천g정도에 불과했다. 그런가하면 저능아 중에도 뇌가 큰사람은 있다.

요컨대 뇌의 내용물이 문제다. 대뇌피질의 신경세포 수효가 감소되면 지능도 저하된다. 대뇌의 신경세포는 20세부터 하루평균 10만개씩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뇌의 신경세포 수효는 1백40억이라고 보고되었다. 그런데 일단 사멸한 신경세포는 결코 재생되지 않는다. 우리의 몸에서 이처럼 재생되지 않는 세포는 대뇌의 신경세포아 심장의 근육세포뿐이다.

옛날부터 뇌의신경세포 수효를 여러사람이 계산했는데 뇌중에서도 심하게 감소되는 부분과 그렇잖은 부분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뇌피질은 지능과 가장 관계가 깊은 곳인데 나이에 따라 신경세포가 현저하게 감소된다.

미국의 브로디박사는 대뇌를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으로 구분해서 측정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나이가 들면 신경세포가 가장현저하게 감소되는 부위는 전두엽인바, 90세에는 젊은이보다 50~60% 감소된다.

가장 경미하게 감소되는 부위가 두정엽으로서 이곳은 젊은이보다 유별나게 감소되지는 않았다』

다른학자의 보고에서도 전두엽 측두엽이 가장 심하게 감소된다고 하였다. 50대에 가장 감소가 심하고 그이후에는 감소율이 적다고 한다.

60세까지 지능을 온전하게 유지한 사람은 노년에도 노망기가 적고, 반대로 무위도식해온 사람은 노망된 노년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신경세포의 수효에는 꽤여유가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신경세포는 10%정도에 불과하다. 나이가 들어서 신경세포가 줄어도 나머지 신경세포가 교대근무를 해 준다.

1백세가된 노인의 뇌의 신경세포를 세어보면 어느 부위나 절반이상 감소되어있다. 그런데도 본인은 멀쩡하게 부지런한 일과를 보내는 예도 있다.

세포의 수효가 적은 「운동기능」은 나이가 들면 쇠퇴하는것이 분명하지만 「판단력」처럼 수많은 신경세포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은 끝잘남아있다. 운동기능에는 예비군이 없으니까 일찍 노화하는 셈이다.

뇌의 예비군도 부단히 단련하여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두뇌는 아무리 혹사해도 소모되지 않는다. 1백40억이나 되는 신경세포를 모조리 동원시키겠다고 덤비는 사람과 1~2억만 활용하면 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크다.

두뇌를 너무 놀려둔 탓으로 일찍 노망해버리는 사람은 많다. 젊은 시절에는 1백40억의 신경세포를 자유자재로 활용할수 있는것이다.

풍부한 신경세포를 구사하여 두뇌의 회로를 자꾸자꾸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젊은 기백과 행동력과 의지가 박약하다고 개탄하는 사람이 많다. 참고 삼아 다음과 같은 「젊음 측정 리스트」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해보라. 해당되는 항목이 절반 이하인 사람은 이미 젊음을 상실했다고 볼수있다.

(1)언제나 진취적인 기분이요. 과거의 일에 구애되지 않는다.
(2)기분전환이 잘 된다.
(3)상식이나 습관에 꺼리끼지 않고 때로는 마음껏 모험을 한다.
(4)호기심이 왕성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 싶어한다.
(5)남들이 꺼리는 일이라도 언짢아하지 않고한다.
(6)이성에게 관심을 갖는다.
(7)새로운 상황에 적응해갈수있다.
(9)돈을 모으기보다 쓰기를 생각한다.
(10)몸의 피로나 이상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 몸의 컨디션은 언제나 좋다.
(11)작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재빠르다.
(12)고독이나 병이나 죽음에 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13)불평불만을 하지않고 꾸준히 가능성을 찾는다.
(14)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립심이 강하다.
(15)같은 말이나 행동을 되풀이 하지 않는다.
(16)이상이나 꿈을 갖고있다.
(17)사물을 재빨리 이해하고 그에 재빨리 반응한다.
(18)어디서나 잠을 잔다.

◇여성을 모독했다는 피씨니니 시의원이 이자리에 없기에 다행? 바비·알렌 댄싱스쿨에 있는 댄싱교습생들은 집안에 틀어 박혀 있는 게으른 여자가 아니라고 왼쪽 발들을 버쩍 쳐들었다. 피씨니니 시의원은 4일"여성들은 게을러 직장도 못갖고 동정만 바란다"고 역설, 여권운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언제나 바른소리를 하는 사람은 욕먹게 마련!

NYT 날조기사 보도

지난12월 캄보디아 현지르뽀

(뉴욕지사)

금년 24세의 한 미국인 후리랜서 기자가 작년 12월20일 뉴욕타임즈 매거진에 쓴 캄보디아 크메르루 게릴라의 현실에 관한 르뽀기사가 사실은 완전한 날조였음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크리스토퍼 존스로 밝혀진 이 후리랜서 기자는 스페인의 칼페라는 지중해연안 소읍에서 은거하던 중, 동기사에 의문을 품고 찾아간 뉴욕타임즈 자체조사반에 의해 추궁을 받고 지난21일 동기사가 순전한 창작이었다고 털어놨다.

뉴욕타임즈지는 21일자 기사에서 존스가 캄보디아를 여행하지도 않고 자신이 1980년도 10월20일자 아세아판 「타임」지에 쓴 기사 및 앙드레말로가 캄보디아를 무대로 쓴 「왕도(THE ROYAL WAY)」에서 한귀절을 표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의 기사를 썼다고 보도했다.

존스는 자신을 찾아간 뉴욕타임즈 매거진 편집국장 에드워드·클라인, NYT마드리드국장 제임스·마크햄 및 최근 5년간 NYT 방콕지국장을 지낸 헨리·캄 기자의 3일간에 걸친 집요한 추궁끝에, 『그것은 도박이었다. 그걸로 모든 것은 끝났다』고 자백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다.

존스는 또한 『불행히도 그것은 너무도 큰 도박이었고,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앞뒤가 완전히 맞지도 않았다. 그 도박은 실수였다』고 실토했다.

그는 스페인에서 이 기사를 쓴 뒤 스위스의 로카르노로 가서 뉴욕으로 기사를 보냄으로써 자신이 태국에서 스위스로 돌아오자마자 기사를 보내는 양 위장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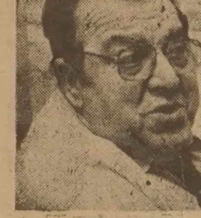
이에대해 NYT 편집총국장 A.M. 로젠탈은, 『우리는 후리랜서인 그가 보낸 기사를 보고 우선 그의 평판을 알아 보았으며 그가 일한 적이 있는 한 아시아계 신문사로부터 믿을만한 언론인이란 회답을 받았다. 그리고나서 그의 기사는 편집인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었으며 의문나는 점은 그와의 전화로 수차례에 걸쳐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존스가 그의 기사에서 인용한 「카디카물루」는 「참은 회색머리의 깡마른 사내」로 묘사되고 있지만 실은 크메르루지의 파리대표부에 있는 여직원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그의 기사는 많은 의문점을 드러냈다고 뉴욕타임즈는 덧붙였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여자들은 게으르다"

시의원주장에 여성들 발끈



◇ 피시니니의원

"토론토 여성들은 성차별을받아 시청직원으로 취직하기 보다는 시의원에당선되는것이 더 쉬울정도"라는 도로시·토마스 여자시의원의 주장에대해 남성시의원 존·피시니니는 "그이유는 보통 여자들은 게을러서 잠이나 자려하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다.

3일 토론토의 시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남녀평등대우에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피시니니의원은"여자들은 동정만기대한다"고 혹평, 이자리에 모인 30여명의 여성들을 분격시켰다.

이 보고서는 토론토시청의 예를들어 5천여명 직원중 여성은 20%밖에 안되고 이 20%의 여성도 책임자급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피사니니의원의" 여성은 게으르다"라는 주장은 여성지위향상 운동가들의 조소와 분노를 받았다.

캐나다 최대의 여성운동단체를 대표하는 진·우드여사는"피시니니의원을 마루바닥으로 끌어내 그의여성멸시습관을 뿌리뽑아 주어야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11일 다시 이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며 "이때 3명의 여성연사가반론을 펼 것"이라고 토마스 여사는 전했다.

생활보험상식

백용빈씨 강연

토론토의 선라이프 보험회사원 백용빈씨는 3월 11일(목)하오7시 세인트·클레어 한인Y회관 (15 Robina Ave)에서 열리는 베티와이즈맨즈클럽(회장 이석현)에서「이민생활에 필요한 보험지식」강연을한다.

생명보험, 주택마련이나 또는 노년기에 대비한 RRSP 등 미래대비를 위한생활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일반교민의 방청도 환영하고있다.

▲발렌주엘라의 연습불참은 발렌주엘라보다 매니저 레마코에게 원성이 쏠리고있다. 최근 LA의 세티단국민학교명예졸업생으로 선발된 발렌주엘라가 동교에 설치된 자신의 간판을 보며 즐거워 하고 있다. (LA-UPI)

성 명 서

①캐나다태권도협회는 최홍희의 아들인 최중화및 그 일당이 그간 수차 북한을 여행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받고 한국의 정국을 혼란시키기 위한 천인공노할 음모의 주동이 되었음을 규탄한다.

②우리는 태권도인이 태권도 보급을 빙자로 태권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음을 규탄, 금번과 같은 음흉한 살인음모가 태권도 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음을 통탄하며, 금번음모에 관계된자들은 태권도에서 자퇴하기를 권유한다.

③우리는 태권도가 순수한 무도로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특히 올림픽 스포츠로 발전하는 현 단계에 이러한 만행이 태권도라는 가명하에 자행된 것을 규탄한다.

④북한측은 고려연방제와 평화통일을 내세우면서 내면적으로는 땅굴을 파고, 또한 금번 음모사건과 같은 살인흉계를 꾸미고, 친북계 인사를 시켜, 북미주 교민과 북미주 흉악범등을 매수하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규탄한다.

⑤금번 사건은 캐나다 당국이 공정히 처리해줄 것으로 믿으나 우리 교민과, 특히 태권도인들은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서 북한측 살인음모와 흉계를 경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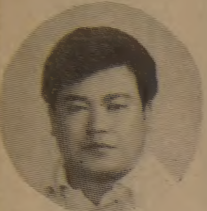
1982년3월3일

재카나다 한인태권도협회 일동

〈수 상〉

초 봄

유 인 형 (문협회원)



◇유인형씨

봄 오시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직 봄눈이 휘뿌리지만 차겁지가 않다. 한밤중의 기적소리도 외롭지않다. 무엇인가 훈훈한 입김이 휘불어와 닿는다.

양지바른 곳에선 성급한 버들강아지가 눈뜨고, 민들레의 새순이 움트고있다. 위대한 흙은 다시새로운생명력을 잠재우고 있다. 속살보다 더연한 새싹이 솟아오른다. 꽃샘바람이 있는데도……

강가에 앉아서 연약한새순을 만져본다. 겸허 하고 너그러운 흙도 만져본다.

새까맣게 기름진 흙이다. 흙을 쓰다듬고 있으면 가슴으로 흐르는 초봄이 느껴진다. 흙도 숨을쉰다. 흙도 말을한다. 낮으막한소근거림이다.

"흙으로 돌아오기 전까진 푸르게 살으렴. 나에게 다시 오기전에 씨앗을 뿌리고 오렴!"

흙속에선 향긋한 냄새가 난다. 무수한 사람들이 흙에 입맞추며 살다 간 어머님의 품안같은 곳이다.

지금쯤 어느곳에선 보슬비가 하염없이 내릴것이다. 포기할줄 모르는 초록빛물감이 부드럽게 칠해지고있다. 기다리며 꿈꾸어오던 새로운힘이 솟는다. 체념할줄 모르는 희망의빛이밝아온다. 가슴을펴고 심호흡을 해본다. 상쾌하고따뜻하여 진다. 멀잖아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철딱서니없는 비바 자족들이 철버덩거릴 것이다. 야생장미는 진달래대신 온통 일버타를 뒤덮어 주겠지.

분홍빛으로 불타는 진달래가 보고싶구나. 바위틈이나 황토흙에서도 순백함으로 웃어주는 서민들의벗인 진달래가 그립다. 어떠한폭풍과 억압에도 맞싸워 이겨내는 강인한 진달래를이곳에다 옮겨심는다. 그소박한 혼백을 다시 배우려한다. 쓸쓸한 애인끼리 감싸안아주던 진달래를 상상하면 짜릿한 회화에 젖는다.

"참 그렇지!"

봄소식은 태평양 건너에서 찾아왔다. 통행금지가 없어졌단다. 그토록 선량한 서민들을 못살게 굴었던통행금지가 사라진 것이다. 적막한 얼음위에 보슬비가 뿌리듯이 그렇게 조금씩흔려주었으면 싶다. 우리땅과 우리하늘과 우리들의바다인데 못불려질 이유는없다. 당신의 붉은피가 우리 모두에게 흐르고 있는데….

압록강물 위로 뛰노는잉어의 은빛비늘도 보고, 모란봉 위에도 올라가보고싶다. 북의 형제들은 다도해로 내려와 동백꽃잎이 바다위로 떨어지는 섬과 섬사이를 휘돌아보렴.

하얀 돛폭에 떠다니는고깃배를 바라보며 잊었던풍류도 더듬어보면 무엇인가 핏줄도 되살아 나리라.

"부-웅"뱃고동 소리를서귀포에서도 듣고, 진남포에서도 듣는날이 찾아오겠지….

봄날이 달콤한 색깔을칠하며 차갑게 오고있다. 이제는 하늘하늘 내리는 눈설도 무섭지 않다. 흐뭇한 꿈을 꾸며 양팔을 벌려본다.

"초봄이구나!"

결혼은 삶의 무덤? 소피아·로렌의 혼인관

◇결혼으로 나의 모든것이 박탈당한 느낌이 들 었다고 최근 자기의 심경을 토로한 여배우 소피아·로렌은 그녀와 남편이 갈라섰다는 항간의 소문을 부인했다.

「레디스·홈·저널」과의인터뷰에서 로렌은"지금 이순간 바로 계속되고있는우리의 결혼생활이 그같은항간의 까쉽들에 대한 답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녀는 남편인 제작가칼로·폴티와의 생활은 질서정연하고 안정되었으나 공허감을 안겨 주었다고 말했다.

◇어떻습니까—요꼬하마에선 타투숍을 경영하는 타투·아티스트가 자신의 전신에 문신을 보여주고있다. 이같은 전신문신을 하려면 고객이 문신바늘의 고통을 감수하는인내정도에 따라몇달내지 몇년이 걸린다고. 〈요꼬하마—AP〉

제왕절개후 정상분만 가능

미 산부인과 협회서 밝혀

제왕절개수술로 첫 아기를 출산한 여성일지라도 다음번 출산시 수술이 없이 아기를 분만할수도 있는 것으로 한 의학조사에서 밝혀졌다.

미국산과 및 부인과협회는 24일 제왕절개수술을 한 여성도 태아가 정상적으로 위치됐거나, 쌍둥이가 아닐 경우등에 다시 수술을 하지 않고 아기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협회는 수술없이 자궁분만을 시도할 경우라도 의사들이 산모의 진통을 관찰 하면서 분만에 문제가 생겼을때 긴급 수술을 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왕절개수술 경험이 있는 여성의 99%가 출생아의 높은 사망 위험률 때문에 재 출산시 수술을 해왔다.

〈장편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 ⑯

고마태오(종욱 :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보좌신부의 첫 시련

그가 좋아하는 술을 함께 나누며 지난날 우리서로가 겪었던 전투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로하여금 나에게 관심을 갖게하자고 나는 생각했다.

전쟁경험을 겪은 군인출신은 그의 국적여하를 막론하고 서로 통하는데가있다. 내가 프랑스에서 공부할때 전쟁경험이있는 군인출신을 여러명 만났는데, 그들과 전쟁체험담을 나눔으로써 쉽게 친해지던 경험을 나는 갖고있다. 서로가 겪은 전장은 다를수 있을지언정 생사를 초월한체험이 거기있기에 서로 통하는 심리가 있게되는것같았다. 이러한 전우의식을 이용해 나는 아스랑을 회개시키는 내 사목적 임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나는 아스랑을 회개시키기위한 내 사목적 계획을 "아스랑 고지점령작전"이라 이름지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세수도 면도도 하지않았다. 다만 이만 닦았다. 그러한 상태로 며칠을 지내니 제법 텁수염이 자라났고, 얼굴모습도험상해졌다. 동료 신부들은내용도 모르고 나보고히피라고 놀려댔다.

그 무렵 모래알에는 수백명의 히피들이 몽로아얄공원을 근거로 모여들기시작할 때였다. 수염을 기르기 시작하자 신자들은 나에대한 구구한 억측속에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묵묵히 있었고, 기이에 본당신부는 나날이 변해져가는 내 모습에 만족한 미소를 보내주고 있었다.

이렇게 10여일을 지낸다음, 나는 아스랑고지 점령작전에 나섰다. 기이에 신부가 사다준 캐나다군의헌군복차림에다 베레모를쓰고, 또 쪼코렛 두봉지와 위스키 한병을갖고 나는 아스랑을 찾아나섰다. 때는기이에 본당신부의 충고대로 오후4시쯤이었다.

벨을 누르자 예상한대로 아스랑이 문을열었다. 베레모를쓰고 군복을입고 색안경을쓰고있는 내가 누구인지 그는 즉시 알아보지 못했다.

"부리노, 오래간만일세. 그동안 잘있었나? 자네하고 옛날 우리서로가 겪었던 전투이야기나 나누며한잔할까하고 자넬 찾아왔네."

나는 술병을 주머니에서 꺼내들어 보이며 그에게능청맞게 말했다.

"네놈이 도대체 누군데 나에게 함부로 반말을 지껄이며 인사성없이 구는가?" 유난히 큰 두 눈방울을 아래위로 굴리며 그는 당장 나를 때릴듯이 주먹을쥐고 있었다. 그때 그의 등뒤에는 때묻은 초라한옷차림을한 그의 자녀들인삐에르와 에릭과 부리질드가 겁먹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부리노를 밀치고 방안으로 들어가 세 아이들에게 영부라스하며 말했다.

"부리노, 이놈들 그동안 많이컸구나! 제 아비보담 훨씬 똑똑하고 잘생겼구나. 너희들은 저못난 애비는제발 닮지말아라. 엿다, 이쪼코렛이나 먹어라!"

혹시 부리노가 내가 신부인줄 모르고 나에게 폭행이나 하지않을까 다소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태연한 자세로 방바닥에앉아 아이들과 개짖는소리를내며 장난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를 두렵게 대하더니 그들은 이내 내 장난에 관심을갖기 시작했고, 금새 나와 친해졌다. 그동안 부리노는 멍청히서서자기 아이들과 서스름없이놀고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부리노의 부인 슈잔은 시장에 갔는지, 직장에 갔는지 집에없었다. 이렇게 한참동안 아이들과 씨름도 하고 짐승짓는 흉내도내며 장난하다보니 땀까지났다. 나는 아이들과 노는것을멈추고 부리노에게 말을 건넸다.

"부리노 네이놈, 바보새끼처럼 왜 그런 꼬락서니로 멍청하게 서있나? 술잔이나 두개 가져오게나. 술이나 한잔 같이하세."

"야 이자식, 연극이 아주 재법인데…너이놈 지난번에 찾아왔던 중국놈신부아닌가?"

그는 내가 신부인줄 알고 있었으나 그의 입버릇인 쌍말로 말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이미 적개심이 보이지 않았다. 나에대한 일종의 호기심과 우정같은것을 나타내며 미소까지 입가에 띄우고 있었다. 나는 일이 잘되어 가는구나 내심 생각하며 긴장감을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계속했다.

"현재 나의신분은 신부지만, 우리는 전우다. 자네는 군대생활 5년했다지 만 난 8년간이나 했다네. 자네는 부상을 두번당했다지만 내 몸에는 상처가 12군데나 있네. 그리고 자네계급은 중사였다지만 난 특무상사였네. 이러한 경력과계급을 봐서도 난 네놈보다는 상급자다. 상급자를 알아모시지 않는놈은 두들겨맞아야해! 알았나, 부리노 아스랑중사?"

나는 엄격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음성만은 내가 할수있는 다정함을 최대로 드러내 말했다.

(계 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O.K. Auto Body
Call 251-9889
Ha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ROLEX
NEW FASHION
FOR TIME'S
FACE

tapered 14kt gold bracelet with two full cut diamonds and 17-jewel movement

북미의 유일한 한국인의 로랙스 대리점
은하보석상에서 역사상 최초로 시도하는
『로랙스 깜짝세일』 단. 품목은
여자용 수동식금시계에 한함.

"사십 퍼센트 할인"

ROLEX
AUTHORIZED
ROLEX
SALES
AND
SERVICE

기간 : 82년3월 5일부터
3월25일까지

★오메가 팔목시계 "재고정리" ➡반액 대매출

은하보석상
620 A BLOOR ST. W
전화 : 534—9977 534—7791

政府、2,863명에 大赦免

제5共和國出帆 1周年 맞아

金大中 無期서 20年으로

減刑 金桂元·李文永·文益煥·金相賢·高銀泰등

刑執行정지 芮春浩·金鍾完…公職者不條理제외

정부는 제5공화국출범과 全斗煥 대통령의 제12代 대통령취임 1주년인 3일을기해 內亂陰謀사건에 관련돼 복역중인 金大中(無期)을 無期에서 징역20년으로 특별減刑하는등 刑확정자 총2천8백63명에게 특별赦免、減刑、復權、刑집행정지、특별假釋放、특별假退院조치를 실시했다고 정부대변인 李光杓문공부장관이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金大中사건관련자 13명 전원、光州사태관련자중 복역중인 17명 전원、故朴正熙 대통령弑害사건으로 복역중인 金桂元(前청와대비서실장) 등과 釜馬사태·舍北사태관련자등이 포함돼있다。

이번조치로 혜택을 받게될 刑확정자는 특별赦免 1천4백19명、減刑 5백45명、復權2백38명、假釋放 5백14명、假退院(소년원) 1백32명、형집행정지 15명등 모두 2천8백63명이다。

◇李光杓문공장관

特赦		1419명
減刑		545명
復權		238명
가석방		514명
假퇴원		132명
刑집행정지		15명

金大中사건 관련자 13명중 減刑은 金大中、李文永(前高大교수) 文益煥(목사) 高銀泰(詩人) 金相賢(前한국정치문화연구소장) 李信範(前서울大生) 등 11명이며 刑집행정지는 芮春浩(前국회의원) 金鍾完(前한국民主憲政동지회장)등 2명이다。

이번 조치에서 公職者부조리、조직폭력、詐欺、공갈、흉악범등은 제외됐다。

李장관은 이날 大赦免조치를 발표하면서『이번 조치는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 단합된 노력에 의해 모든 분야에 걸쳐 다져진 안정의기반위에 국민大和合의 계기를 마련、80년대 민주복지국가건설에 同參할수있도록 하기위한것』이라고 말하고『이는 舊時代의 反目과 갈등을 청산하고 80년초 국가적 혼란기의 傷痕을 조속히 치유、국민적和合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全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3·3大赦免현황

	赦免	減刑	復權	假釋放	假退院	刑停止	計
釜馬사태	1		4				5
大統領弑害사건		1					1
舍北사태			23				23
金大中內亂음모사건		11				2	13
光州사태	1	15	125			2	143
기타戒嚴法위반	24		86				110
淸溪被服勞組사건						3	3
傷害等기타사건	1,393	518		514	132	8	2,565
計	1,419	545	238	514	132	15	2,863

◇大赦免내용

◇釜馬事態관련자 ▲李成勳(電工)=執行猶豫期間면제(特別赦免)▲盧承日(書籍商)=特別復權▲吳海龍(無職)=〃▲黃庠潤(金型工)=〃▲全相徹(無職)=〃

◇朴대통령弑害사건관련자 ▲金桂元(前大統領비서실장)=징역20년→징역10년

◇舍北事態관련자 ▲崔興善(信用組合理事)=특별復權▲李源鉀(鑛夫)=〃▲崔燉赫(〃)=〃等

◇金大中 내란음모사건 관련자 ▲金大中(無職)=無期→징역20년▲李文永(前高大교수)=징역15년→〃8년▲文益煥(牧師)=〃10년→〃7년▲高銀泰(詩人)=〃▲金相賢(前韓國政治文化硏究所長)=〃7년→〃4년▲李信範(前서울大生)=징역9년→징역8년▲趙誠宇(前高大生)=〃10년→〃9년▲李海瓚(前서울大生)=〃7년→〃6년▲李錫杓(無職)=〃7년→〃6년▲宋基元(前中央大生)=〃5년→〃4년▲薛勳(前高大生)=〃7년→〃6년▲芮春浩(前國會議員)=刑執行停止▲金鍾完(前韓國民主憲政同志會長)=〃

◇光州事態관련자 ▲鄭東年(前全南大生)=無期징역→징역20년▲裵龍柱(運轉手)=〃▲朴魯汀(印刷工)=〃▲朴南宣(運轉手)=징역20년→징역10년▲金宗培(前朝鮮大生)=〃▲尹錫樓(家具工)=〃▲鄭祥容(會社員)=〃▲河永烈(工員)=〃▲尹再根(〃)=〃▲徐萬錫(無職)=〃▲許圭晶(前朝鮮大生)=〃7년→〃6년▲李在鎬(室內裝飾業)=〃6년→〃5년▲金雲起(前朝鮮大生)=〃5년→〃4년▲梁熙昇(前朝鮮大生)=징역5년→징역4년▲韓尙錫(前全南大生)=〃▲尹江鈺(〃)=刑執行停止▲朴錫武(敎師)=〃▲韓奉哲(無職)=執行猶豫期間면제(特別赦免)等

◇其他戒嚴法위반자 ▲李永俊(商業)=殘刑執行면제(特別赦免)▲李蘭蓮(行商)=〃▲李大熙(會社員)=〃▲卓鳳吉(商業)=〃▲金大憲(料理士)=〃▲李富圭(無職)=〃▲柳在一(電氣工)=〃▲黃哲(商業)=〃▲李得性(前社會黨員)=〃▲林和國(會社代表)=〃▲張弘植(印刷工)=〃▲徐哲龍(書籍商)=〃▲吳泰淳(神父)=특별復權▲張德弼(〃)=〃▲徐東九(前文化放送調査局長)특별復權等

◇淸溪被服勞組사건관련자 ▲朴樞賢(勞動組合대의원)=刑執行停止▲金成敏(前勞組員)=〃▲金榮大(〃)=〃

淨化退職공무원 復歸가능

李文公 就業제한 작년8월로 해제

정부대변인 李光杓문공부장관은 2일『國保委의 개혁과정에서 淨化퇴직한 사람들의 취업제한기간이 이미 81년 8월31일로 해제됐다』고 밝히고『이들에게는 현행법령상 취업이나 사회적활동에 제약이나 규제가없다』고 강조했다。

李장관은 또『정화조치로 퇴직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의 복귀가 가능하고 국영기업체등 정부산하단체 임직원으로서 정화퇴직한 사람역시 복귀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淨化조치로퇴직한공직자는 모두 8천8백77명인데 이중 공무원은 5천6백99명이고 정부산하 단체임직원은 3천1백78명이다。

정화퇴직공무원은 국장급이 2백64명이고 4급이하는 5천4백35명이며 정부 산하단체 임직원은▲임원이 1백68명 ▲일반직원 3천10명이다。

忠北大총장 延圭鑽씨

정부는 2일 忠北大총장에 延圭鑽忠北大 사대교수를 임명했다。

정부는 또 이날3월1일부터 종합대학으로 승격한濟州大총장에 玄平孝 現대학장을 임명했다。

地自制早期실시 어렵다

劉총리國會답변

政治규제자 改悛하면 解除

3黨대표 질문

국회는 2일하오 劉彰順국무총리와 金埈成부총리등 각료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의 첫본회의를열고 民正·民韓·국민등 3개정당의 대표질문을 벌였다。

이날 3黨의 대표질문에는 국민당의 尹錫民부총재、民正黨의 羅碩昊 정책위의장、民韓黨의 金鉉奎 정책심의회의장등이 차례로나서 정치안보경제사회등 國政전반에 걸쳐 各黨의 견해를 밝히고 정부측의 답변을 요구했다。

劉彰順총리는 이날 답변에서『헌법에 근거를둔 정치활동 피규제자 解禁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관한 사항이지만 법에명시된대로 改悛의정이 현저한자에대해서는언제나 해제가 가능하다』고 말한뒤『그러나 성급한 해제는모처럼 성숙돼가고있는 깨끗한 정치풍토를 뒤흔들우려가있으며 국민들도 새시대의 정치定着을 바라고있지 舊시대의 부활을 바라고 있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정치被規제자는 그들이 원하든 원치않든 구시대의 非理와 부정에대해정치적、도의적책임을 져야하는것이 마땅하다』고말했다。

劉총리는 이어『지난 1년동안 각분야에걸친 제반화한조치가 취해진바있으며 현재의 정치현상은 분명히 탄압과 권력남용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하고『야간통행금지해제 이후 우리 국민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질서의식을 확고히 하고 일부에서 우려했던 부작용은 나타나지않은 긍정적 성과로 미루어 자율화、개방화정책은 점진적으로 펴나가더라도 국민의 안보의식은 약화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劉총리는 地自制실시와 관련『현시점은 혼란을 극복하고 새질서를 자리잡는과정으로서 우선은 안보·경제등 당면과제를 해결하는것이 순서이기때문에 早期실시는 어렵다』고말했다。

그는外債문제에관해 81년말현재外債殘額은3백25억달러이며 86년에는 6백45억달러로 전망된다고 말하고『元利金상환부담률이 20%를 넘으면 위험하며 15%수준은 세계은행에서도 높다고는 보지않는데 우리나라의경우는 81년에 13·4%였으며 금년에는 12·8%로 전망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5차5개년계획이 만료되는 86년말까지 外債잔액이 계획상으로는 6백45억달러이지만 油價가 안정되고 한국重工業의 完工으로 인해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해온 施設材를 國産化로代替할수 있기때문에 89년말에는 5백억달러대수준으로 감축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外債의존도를 줄이기위해▲內資동원극대화▲外資도입억제▲外換 대부억제▲高金利의 국산 기자재활용및 수입자유화억제조치등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金埈成부총리는『82년과83년을 경제체질개선 중간조정기로 설정、구조적 비능률을 대폭개선하는한편 예기치못한 변화에 대비、5차5개년계획을 1년씩 연장、連動化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세에 대해『아직 정착되지않고있는 소매상이나 대중음식점의 행정적운영에 역점을 두고 집중적 指導를 하겠으며 法개정도 필요하다면 신중히검토하겠다』고말하고『기술및 인력개발을 위해 금년중 2백95억원을 투입、기술개발주식회사를 신설하겠다』고말했다。

이날 對정부 질문을통해국민당의 尹부총재 民韓黨의金의장등 金黨代表들은『改革立法을 개정할수 없다는것은개혁에 대한 모순이며 모든』이라면서 선거법 국회법 언론기본법등 立法會議에서 만들어진 각종 정치法案의 개정을 주장했다。

이들 金黨간부들은 또『時代의 和合과 국민총화를 위해』정치활동 被規制者들의 解禁을 요구하고 地方自治制의 즉각실시를 주장했다。

이들은 또『현재의 국회는 無氣力하고 진정한 정치의무대가 되지않고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活性化를위해『정치관계법 特委』를 구성하자고 제의하고『執權黨은 肥大하고 야당은 倭少해지는 一黨優位나 정당간의 불균형은 정치근대화에 장애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밖에 ▲北傀의軍事力증강에 대한 대응책▲核개발 잠재력의 확보▲外債개선 ▲세민生活보호 ▲교육제도 ▲고문등人權유린防止 ▲經濟難局打開策▲ 對策등을 물었다。

民正黨의 羅의장은『정당과 정부、국회와 정부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발전시키는 방안은무엇인가』고묻고 全斗煥대통령이 제의한 민주통일 방안의 구체적 實現방안에관해 질문했다。

그는 또 철도등 정부기업에대해 公共요금을 과감히現實化하든지 아니면 公社化하여 경영合理化를기하라고 촉구하고 국영기업체의 경우도 만성적赤字를 과감히 정리하든지 民間에 매각하는게어떤가고물었다。

◇劉彰順 국무총리(맨앞줄)가 이끄는 實務內閣은 2일 임시국회에서 처음으로 답변솜씨를 테스트받았다。사진제2列 左로부터 金埈成부총리와 盧信永외무、鄭宗澤정무제1、제3列 李鍾元법무、羅雄培재무、제4列 徐錫俊상공、高建농수산、權重東노동장관、제5列 許文道문공차관、金容烋총무처、李宣基동자부장관。

260件 439億원 支援요청

科技處 올해 特定연구개발사업

科學技術處가 올해 지원하는 1백40억원의 특정연구개발사업에 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55건 1백66억3천7백만원、1백30개민간기업으로부터 1백95건 2백73억4천9백만원등 도합2백60건의 연구과제에 4백39억8천6백만원의 지원금을 요청해 온것으로 집계됐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이란 정부가 우리나라 핵심산업기술을 중점개발하기위해 마련한것。정부는 이를 국가주도연구개발사업과 기업주도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 시행하고있다。

국가주도연구개발사업은 공익성이 높고 中·長期대형과제 또는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은 기업의 기술개발을위해 연구비를 정부와 기업이 공동부담하되 기업주도로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이다。

科学 뉴스

美、議會에權限요청

한국有事時 20억弗

【워싱턴1日=聯合】美국방성은 1일 의회에대해 북괴의 남침이있거나 남침이 임박했을경우 약20억달러의 탄약및 기타 전쟁비축장비를 한국군에 신속히공급할수있는 권한을 승인해줄것을 요청했다。

국방성관리들은 이 전쟁비축물자 비축조치가 한국측의 공식 요청과『전쟁이 발발하고있거나 임박했을』韓·美양국 대통령이 공동확인할 경우 이행될 비상계획이라고 설명했다。

本社辭令

一、編輯人兼理事 鄭泰演
命 코리아타임스 擔當副社長

一、한국일보編輯局長 權赫昇
命 編輯人兼編輯理事

一、日刊스포츠編輯局長 曺斗欽
命 한국일보編輯局長

一、한국일보編輯局次長 李成杓
命 日刊스포츠編輯局長

一、한국일보編輯局次長兼綜合編輯部長 李祥雨
命 週刊局長

一、日刊스포츠編輯局次長 吳道光
命 日刊스포츠局長代理

一、駐佛特派員 金聖佑
命 한국일보論說委員

一、駐美特派員 曺淳煥
命 한국일보論說委員

一、週刊局長 趙東彪
命 日刊스포츠論說委員

(3월3일字)

社會漫評

만1년

地平線

上德不德、是以有德。下德不失德、是以無德。老子의 말인데 史記를 쓴 司馬遷의 설명을 들어야 그 참뜻을 알 수있다。즉 큰덕이 있는사람은 그덕을 덕이라고 스스로 의식하거나 남에게 보이지않는다。말하자면 큰덕이 몸에 붙어있기 때문이다。덕이 적은사람은 그덕을 남에게 보이고싶어 한다。그러므로 참된덕이 떨어져 없어진다는 것이다。

▼오늘로 제5공화국 全斗煥대통령의 취임첫돌을 맞는다。그초기 다소걱정스런 눈초리를 보이던 우방여러나라의 평가는 어느새 한국이 안정된 제자리에 들어섰다는데 일치되고 있다。미국무성의 한관리는 全대통령의 통치1년은 전적으로 기대를 넘어선 놀라운 결과라고 말했다。금년초의 통일방안제의에서 보인 全대통령의 적극적이고도 유연한 자세는 국가통치에대한 확고한 자신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이다。또 글라이스틴 前주한 미국대사는 全대통령의 융통성에 감복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共同통신은 한국이「질서있는 문명생활」캠페인을 전개하는등 88년 서울올림픽유치를 계기로「韓國版 大革命」같은것을 진행시키고있다는 논평을했다。통금해제、「교복·헤어스타일자율화」、해외여행규제완화、출판제한 완화등 자유화정책은 당초의 경직된 이미지를 벗어나 유연한 자세를 내외에 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여러가지 개혁을 통해 사회안정기반이 다져지고 국제적 지지도가 높아져 한국의 국력이 크게 뻗어났다는데 해외의 견해가 합쳐진 셈이다。

▼과묵하고 경직하게 보이던 全대통령의 참된지도력과 결단력이 내외에알려진 것이다。그간民聲·民願에 귀를 기울린 庶民 대통령의 부드러운얼굴이 또한 눈에띄었다。스스로 질서를 지키면서 청와대의 문턱을 낮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가하면 不時에 民情시찰에 나서 세상돌아가는얘기를 열심히 들었다。엊그제1일새벽에도일선시찰길에 抱川民家엘 들렀다。취임 1년에 지방순시、민정시찰여정이 1만9천7백48㎞에 이른다고 한다。老人福祉自助會사건때는친족이 관련된것을알고 서릿발같은 決斷力을 보였지만 그마음속엔 언제나 훈훈한 人情美가 흐르고있는것을 읽을수있다。

▼孝子로 소문난 분이기도한 全대통령의 用人哲學은 첫째로 가정환경、집안화목、孝誠을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專門性을 보는것으로 알려져있다。취임한돌을 넘기면서 全대통령의 보이지않던 德品이 갈수록 진해지는 것이다。그를 보필하는 令夫人의 모습 또한 한결 같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 (B)
791-8196 (R)

"북한 공산당의흉계를 규탄한다"

설마 하든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제 2 의 문세광사건이 우리가살고 있는 토론토에서 재연될 뻔 하였으니 하였으니 말이다.

카나다의 합동수사대가 전대통령 살해음모사건을 사전에 타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교포들이 어찌 얼굴들고 앞으로 모국을 방문할 수 있었을 것인가! 태권도를 보급한다고 최홍희를 단장으로 북한에 갔던 사람들중 최홍희의 아들인 최중화 가 전대통령 살해음모의 중심인물로 지명 수배되고 있으니 우리 교포들이 어찌 방관할 수 있겠는가?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나라"라는 우리의 옛말이 생각난다. 이 북한 당국의 이리와 같은 심보를 과거 뼈저리게 체험 해온 수많은 교포들이 1년전 "우리 조국은 대한민국이다"라는 반공성명을 통해, 교포여러분께 호소한바 같이, 북한공산당들은 양의 가죽을 쓰고 동족애를 내세워 반가운듯 융숭하게 북한 방문자들을 대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미소뒤에는 꼭 음흉한계략과 모략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은 공산주의를 체험한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 있는 사실이다. 한 마디로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인정 사정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교포 여러분!

우리들은 이번의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 일생을 불행하게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겠으며 북한공산당 우리 교포사회에 침투하여 제 2 의 조총련 조직을 만들려는 흉계를 사전에 철저히봉괴시켜야 할것이다.

1982. 3. 3

구진모 고순복 김정운 김춘탁 김명규 김삼도 김지연 김문량 곽정열 박광철 박인순 박주삼 서정길 이병권 이훈모 이영목
유영린 윤여하 장순채 장영채 전택균 조한철 조영호 함병섭 함희현 (가나다순)

80년대 跳躍의 未來像제시

全대통령의 리더십·人間像·統治哲學

創造·改革·폭넓은對話로포용

◇全斗煥 대통령은 아침6시부터 밤12시잠자리에 들때까지 하루일과를 빠듯하게보낸다。그틈을 쪼개 신문을읽으며 전국에서 일어나는 뉴스와 세상돌아가는 얘기에 접하기도한다。

제5공화국의 첫 대통령인 全斗煥대통령이 3일로 제12代대통령취임 1주년을 맞았다. 「全대통령의 時代」의 지난1년은 국민에게는 創造와 改革으로 80년대 跳躍의 未來像을 제시한 한해였고, 全대통령 개인으로서는 苦惱와 고독을 함께한 해였다. 또 이 1주년은 全대통령이 主役으로서 80년대를 이끌어갈 統治哲學과 지도者像이 확고히 定型化된 한해이기도 했다. 全대통령의 創造, 改革의 통치철학은 한마디로 發展으로 집약된다. 12代 취임사를 통해 80년대의 시대정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가는 創造의 의지, 비생산적인 毒素를 제거하는 새로운 활력소를 주입하려는 改革의 의지, 흥통한 전통과 민족적 正統性을 살찌워가는 발전의 의지를 강조했다. 5·17조치이후의 각분야에 걸친 개혁, 그리고 1·12와 6·5제의, 그리고 1·22 민주통일방안등에서 나타난 통일지향은 바로 이같은 통치철학의 결과라고도 할수있다. 이러한철학을 바탕으로 全대통령은 對話와 타협을 중시하는 통치방식으로 國政을 운영하고 있다.

全대통령은 모든정책을 결정할때 항상 국민전체와함께 결정을내린다는 입장을 취하고있으며 이에따라 모든문제에있어 충분히 대화한뒤 결정을내린다고 측근들은 전한다. 올바른 의견이면 체면을 생각하지않고 받아들이는 包容力을지니고 있는것이다.

대화와 토론과 타협을 重視하는 全대통령의 통치방식은 능률위주의 엘리트주의적이었던 朴正熙대통령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權力을 잡는 것도 어렵지만 떠난다는것은 더욱 어렵다"

평화적 政權교체意志 확고히 밝혀

〔尹國炳기자〕

蘇、日에「核不使用」제의

브레즈네프、日作家그룹에書翰

【모스크바·東京1日聯·AP】브레즈네프 소련 최고회의 간부회의장겸 공산당서기장은 1일 일본이 자국영토내 핵탄두를 배치않는데 대해 소련도 일본에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日·蘇 쌍무협정을 체결할것을 제의했다. 브레즈네프는 이날 한 일본 작가그룹에 보낸 답서에서 소련은 『핵무기를 생산, 배치하지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결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재다짐하면서 소련은 어떤 非核국가들과도 『이에관한 특별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브레즈네프는 이어 『소련은 이문제에관해 일본과 의견을 나누는데 아무런 장애가없을것』이라고말함으로써 핵불사용에관한 협정을 처음으로 일본에 직접제의했다. 브레즈네프는 또 모든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소유를 포기한다면 소련도 핵병참을 제거할 용의가있다고 말하고 소련은 핵전쟁의 재앙을피하고 세계평화를 추구하는데 선도적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다짐했다.

◇蘇우주선 金星착륙 금성에 착륙한 蘇우주선 비너스13號의 착륙선이 1일 전송해온 금성표면의 사진。사다리처럼 보이는 기구가 토양채취기이며 착륙선의 모습 일부가 사진하단에 나타나 있다。이 사진은 타스통신이 일본에 제공한 것이다。【東京1日AP特約=聯】

엘살바도르兩派에 美서 協商주선

【워싱턴1日AP=聯】미국은 오는 28일 엘살바도르제헌의회선출을 위한 선거가 끝난후 엘살바도르 정부와 좌익게릴라 민주세력과의 협상을 장려할것이라고 미국의 관변소식통들이 1일 말했다. 소식통들은 28일 총선에 국민들의 참여도가 높을 경우 합법적 권력구조가 군사위원회를 대체하는 등 엘살바도르정치상황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外信안테나

◆과테말라 左翼들 선거방해 해국심=중미 과테말라의 좌익게릴라들은 1일 산타 바바라등 북부지역의 2개촌락을 공격, 청사에 침입해서 오는7일 실시될 대통령선거 유권자명단을 불태워버렸다고 당국이 밝혔다. 과테말라당국은 좌익게릴라들이 산타 바바라, 산 미겔 치카하등 북부의 2개촌락을 공격, 시청을 점거하고 청사에 보관돼있던 유권자명부를 소각했다고 말했다.【과테말라시티=UPI】

科學技術團體總聯 올해 정기총회

한국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지난 24일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7대회장에 임기만료된 閔寬植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하고 올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메아리

恩山 別神祭

은산별신제가 3년만에 오는 27일부터 1주일동안 열리게 된다는 소식이다. 중요무형문화재 5호로 지정된 이 은산별신제는 경북 안동의 하회별신제를 비롯하여 국내에 현존하는 10여개소의 별신제 가운데서도 가장 고형이 잘 간직되었을뿐아니라 규모가 크기로도 으뜸이다.

충남부여군은산면은산리에 전해지는 이 별신굿은 옛 백제토성의 흔적이 있고 고목이 우거진 마을뒷산 숲속의 당집을 중심으로 하여 13일 동안 이어지는데 근자에는 그 규모가 좀 줄었다.

당집 정면에는 가운데 산신을, 그리고 좌우로 福信장군과 土進大師의 위패를 모셨는데 이 지방의 구전으로는 장군과 대사는 백제를 재건코자 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채 죽은 백제의 장군과 대사라고 전한다.

이 행사에 참가하는 인원과 채입부서는 大將, 中軍, 司令執事와 先陪裨將, 後陪裨將, 通引, 火主, 肉主, 別座, 祝官, 樂工, 農樂隊에 物運搬者, 旗手, 나팔수, 球燈, 花束등으로 1祭 백여명이 넘는다.

특히 올해 별신제를 주재하게될 중요인물이자 기능보유자인 大將역 劉備烈옹과 白南龍옹은 85세와 82세이고 무녀역인 李於仁씨도 89세의 고령인데다가 행사의 비용이 백미 1백섬 내지 2백섬가량 소요되어 그 지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듯 하다.

첫날 神木인 진대를 4개 베어와서 제3일에는 꽃을 받아오고 5일째부터 본격적인 축제로 들어 간다가 13일째인 마지막날엔 진대로 마을의 동서남북 사방에다 장승을 깎아 세우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진다.

은산별신제는 토속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군대의 의식이 가미된 將軍祭的인 성격이 짙은 축제로서 고장사람들은 이 의식을 통하여 옛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원혼을 달래고 평화를 기원했던 것이다.

이제는 의식의 대상인 위패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조차 저버려 졌으면서도 이렇듯 그들이 끼친바를 추앙하려는 정성과 보은의 민심은 삶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새삼 되새기게 된다.

財界 로터리

現場情報 다량入手 절실

○…金竣成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일 院內사무관급이상 전직원이 참석한 월례朝會에서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경제부처간의 정책異見을 조정하는 경제기획원의 책무와 기능을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판단력과 풍부한 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 現場에 직접나가 상황을 판단하는 현장검증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

그는 卓上보고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하며 특히 경제관료들이 급속한 산업사회의 기술이나 가치관변화추이에 적응할수 없으면 판단력은 상실된다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또 1·14조치이후 우리경제가 피부로 느낄만큼 회복되었다고 볼수는 없으나 회복조짐은 보이기시작했다고 말하고 우리경제가 3월부터 풀리는 실마리를 찾을수있도록 경제기획원직원들이 倍前의 노력을 경주하자고 촉구.

"3월부터 經濟回復 실마리찾자"

프랑스 有名商標 허가없이 盜用은 매우유감

家電3社 냉장고市場놓고 熱戰채비 서둘러

商標질서 確立서둘러야

○…세계적인 화장품메이커인 프랑스의 샤넬社 베르나르·레만회장은 明洞등 우리나라 주요상가에서 프랑스의 유명상표가 허가도없이 도용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이의 자제를 촉구. 平和油脂工業이 샤넬상표를 도용, 항고심판중인 특허분쟁을 해결키위해 來韓한 레만회장은 2일 離韓에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韓國도 세계시장을 상대로하여 거래를하는 수출국인만큼 商標시장질서를 확립해야할것이라고 말하고 공업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때 비로소 프랑스 유명상표의 對韓진출이 활발해질것으로 전망. 레만회장은 특허항고심판중에 있는 平和油脂비누의 샤넬상표도용문제는 韓國法에의해 해결될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샤넬의 상표및 화장품제조기술의 對韓이전문제에관해 샤넬社는 프랑스에서만 제조관리하는것을 원칙으로하고 있다면서 L社의 샤넬상표도입설을 일축.

레만회장은 이번訪韓중 관계부처를 예방, 韓國이 화장품에대한 수입문호를 개방해줄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는데 현재 롯데쇼핑센터 우연패션 韓國火藥그룹 뉴 골든아동복등이 프랑스의 유명의류상표도입을 추진중에 있다고.

便利性을 強點으로주장

○…家電3社들은 올해 2천억원에달할 냉장고시장을 두고 熱戰을벌일 채비를 서두르고있다. 金星社 三星電子 大韓電線등은 안해마다 서리는 직냉식과 간냉식의 냉동효과 냉동실과 냉장실의 우위론 節電效果 냉동실과 냉장실의 크기등으로 출력전을 벌여왔는데 올해는 편리성을 강조하고 컬러를 다양화시킨 신제품개발로 맞붙을전망.

金星社는 2백30ℓ를 비롯해서 3백50ℓ 5백ℓ등 3개 모델을 3도어화한 신제품을 개발. 3도어냉장고는 사용빈도및 인체공학적 설계에의한 편의성과 냉동·냉장·야채실의 적정온도에따라 저장식품을 안배, 보관할수 있도록 냉장고 구조에 혁신을 가져왔다고 주장.

三星電子는 냉동실을 냉장실로 전환시키는 2백ℓ짜리 切換型 냉장고를 개발. 이切換型 냉장고는 필요에 따라 스위치 조작만으로 냉동실을 냉장실로 切換사용함으로써 2백60ℓ짜리의 냉장실면적과 같은 1백76ℓ크기의 용적효과를 가지게되고 월 소비전력도 작년 37㎾에서 24%절감시킨 28㎾로 떨어뜨리고 크리어백 방식을 채용, 벽에 완전히 밀착시킬수 있다는것.

大韓電線은 크리어백 냉장고의 종류를 종전의 2백30ℓ짜리와 2백70ℓ짜리 두가지에서 1백80ℓ짜리와 2백ℓ짜리등 두가지를 추가, 4가지를 내놓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냉장고는 가전메이커의 主力상품으로 지난해에는 60만대가 팔렸으나 올해에는 66만대정도 팔려, 최고기록을 세울것으로업계는 전망.

東海펄프가 곧 再起한다

○…문제기업 東海펄프가 되살아난다. 東海펄프는 국산원자재를 사용하므로 외화를 절약한다는 취지아래 설립되었으나 그동안 부실화요인이 누적되어 폐업위기에까지 직면했다.

東海펄프의 자본금은 2백57억원인데 80년말 현재 누적적자가 90억원에 이르렀고 그뒤에 81년한해동안 1백60억원의 적자가 다시 늘어나 자본금을 거의 잠식한단계. 특히 81년중 매출액은 3백90억원에 불과한데 적자가 1백60억원에 달했을뿐아니라 가동 초기단계에서 원리금상환이 집중적으로 몰려들어 정부지원이 없이는 재기할수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東海펄프의 경영진단결과 일부 工程개선으로 가동률이 80%에서 1백%로 높아지고 국산목재를 사용할수있는 기틀이 잡혀감에 따라 자금지원만 뒤따르면 곧 정상화될것으로 판단. 이에따라 產銀에대해 차관원리금 상환기일도래분 1백41억원을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해주고 산은대출금 1백62억원을 출자전환해주도록 요청. 또 금년중으로 경영을 정상화한후 83년부터서는 日産3백톤에서 8백톤으로 늘리는 증설작업에 착수할계획이라고.

酒精합작생산 輸入추진

○…眞露가 인도네시아로부터 酒精원료인 타피오카(일명돼지감자)의 현지생산수입을 꾀하고 있다고. 현재 국내에서 쓰이고있는 酒精원료는 정부가 농가로부터 수매하는 고구마와 주로 동남아지역에서 수입되는 타피오카및 糖蜜로서 수입분과 국내분이 6대4의 비율. 국내최대의 酒精수요기업인 眞露측은 지난해 수입량이 1천7백만달러어치에 이르는 타피오카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시장 진출경험을 쌓기위해 현지생산을 꾀하고 있는데 타피오카의 현지수입보다는 현지에 粗酒精공장을 세우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10개原受保險 성장好轉

○…작년과같은 不況속에서도 48%의 고도성장을 해온 보험업계에 판도가 변하고있다. 13개 손보사의 경우 독점업체인 대한재보험 한국자동차보험 대한보증보험등 3개사가 부진한 반면 10개 原受會社는 좋은 경영실적을 올린것으로 나타났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이3개사는 겨우 배당을 한 정도의 순익을 냈으나 汎韓海上, 安國火災, 國際火災등은 자본금보다 훨씬 많은 16억원 내지 20억원의 순익을 내면서 선두다툼을 벌였다. 生保社의 경우엔 80년도엔 東邦生命이 53억원, 大韓教育保險이 2억원의 黑字를보였을뿐나머지 4개사는 赤字였다. 81년엔 東邦 教保 大韓 興國이 흑자를, 第一과 東海만이 적자를 나타냈다. 그런데 영업실적면에선 教保가 東邦을 앞지르고 先頭에 나섰고 興國·東海가 크게 뒤로처지고있어 올해의 보험판도가 더욱 가열될전망.

企業體質훈련 夜間실시

○…한국화약그룹이 그룹소속사원 5백73명을 대상으로 충북鳥嶺山일대에서 약8시간이 소요되는 26·2㎞의 야간행군훈련을 계획하고있어 재계에서는 이색적인 기업체질강화방안으로 해석. 동 그룹은 기업체질강화와 경제안보의식을 높여주는 정신교육훈련의 하나로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6개조로 나눠 충북 忠州와 수안보 鳥嶺山일대에서 야간행군을 실시키로 했다는것. 적극성과 책임의식·단합의지를 고취시키기위한 이번 야간행군은 2박3일교육일정중에 포함돼 있는데 金昇淵그룹회장이 야간행군에 함께 참여키로 돼 있어 사원들의 관심이 크다.

工作기계 海外展示場 10개國으로 擴大키로 …政府

정부는 공작기계수출을 촉진하기위해 해외상설전시장을 10개국으로 확대하고 수출검사제도를 대폭개선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를위해 오는 3월23일 개설되는 美國 로스엔젤레스 공작기계 전시장에 이어 향후5년동안 암스테르담(和)자카르타(印尼)등 세계10개주요지역에 상설전시장을 개설운영하고 세계각국에서 개최되는 각종박람회및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세일즈團을 파견키로했다.

飼料用 곡물導入 인센티브制 실시

농수산부는 국제穀物價格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 사료용 곡물의 적기적량도입을 추진하고 국내 配合飼料가격 안정을 유도하기위해 사료용 穀物導入에 대한 인센티브制를 실시키로 했다. 2일 농수산부에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세계전체곡물 생산증가에따라 최근 옥수수의 국제가격이 톤당 1백15달러선으로 전년동기의 1백56달러에 비해 25%이상이 떨어진것을 비롯, 콩과옥수수가격이 하락세를보이는데 능동적으로 대처, 사료용 곡물의 적기적량도입과 이를 통한 국내사료가격안정을 기하기위한 것이다.

韓電기구縮小 16部·4室로

韓電은 2일자로 本社의기구를 현재의 23部5室 1班에서 16部4室로 7部1室1班20개과를 축소시켰다. 한전은 인력개발부·立地環境部系統 運用部 原子力企劃部등을 폐지하고 內資部와 外資部 제1건설부와 제2건설부 LNG기획부와 LNG건설부등을 통합하고 연료실과 원자력 안전 관리반을 유관부서에 흡수통합했다.

經濟短信

▲朴大善씨등 7명, 明星고문에=明星그룹(회장 金澈鎬)은 2일 前延大총장인 朴大善씨, 前文教차관 李春成씨, 前高大商大학장 趙益淳씨등 각계 인사 7명을 고문으로 추대.

▲제2회 전국경영자연찬회=韓國經總 總協會는 4일부터 5일까지 하이아트호텔에서 『제2도약의 경영전략을 모색한다』를 주제로한 제2회 전국경영자 연찬회를 개최한다.

맛 사 지

DIXIE HEALTH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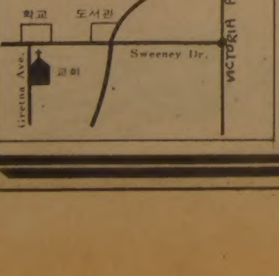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심령대부흥회

조천일 목사

강 사 : 조천일 목사
(나성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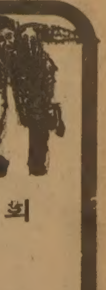
시 일 : 1982년3월18일(목)~21일(일) 매일저녁7시
장 소 : 토론토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7 Gretna Ave.)



교통편 : Woodbine정류장에서 91, 91-C번버스를이용하시면 교회앞에서 내리심

문의및연락 : 김경진 목사(281-5706)
고현석 장로(493-8782)

공 고



제 3 회
동부장로교회컵 볼링대회

일시 : 1982년 3월27일(토) 12시
장소 : Play-time bowlerama
(33 Samor Dr.) ☎787-7421
경기종목 : 남녀개인전및 단체전(개인전을 토대로 핸디 적용함)
참가비 : 개인전 5불
단체전15불
시상 ○남자개인전 A조 1,2,3등
B조 1,2,3등
○여자개인전 1, 2, 3등
○단체전 1, 2, 3등
○터키상 남자2명 여자1명
(볼 협회 제)
○하이·싱글상 1명
○행운상 2명
연락 : Mr. 리 ☎ : 633-7797
Mr. 조 ☎ : 226-2709

주최 : 토론토 동부한인장로교회 청년회
후원 : 재 캐나다 볼링 협회

한국일보
특집판
取材팀
本社 編輯局
美 LA支社
特別 취재班

5·16革命 그眞相을 證言한다

중앙청 別室의 密談

張都暎 당시 陸參總長의 回顧

朴少將과 胸襟터 둘만의 마지막對坐

"軍政2년이면 충분하냐"에 默默퇴장

◇당시의 張都暎씨

5·16혁명직후 國家再建最高會議議長이었던 예비역육군중장 張都暎씨(60세). 5·16혁명이 成敗의 벼랑위에서 숨가쁜 호흡을 하고 있을때 民主黨정부와 革命세력이 모두 절실히 필요로했던 육군참모총장. 혁명진압과 동조의 갈림길에서 擇一을 해야했던 그는 혁명정부에가담, 잠시나마 과도기의 리더를 맡았던 장본인이다.

5·16을 事前에 알고있었는가, 모르고 있었는가. 알고있었다면 왜 눈을 감았으며 그후 反혁명으로 몰린 이유는 무엇인가.

5·16얘기가 나올때마다 제기되는 이러한 의문에 한마디 언급도없이 훌쩍 미국으로 떠났었다.

웨스턴 미시간대학교수 (국제정치학)로 있으면서 현재 스탠퍼드대학의 교환교수로 초청받고 팔로알토(샌프란시스코近郊)에 잠시 체류중인 張씨는 지난19일하오8시 그의 아파트에서 本報로스앤젤레스支社기자와 만나 이런의문들에관해 설명했다.

張씨는『역사는 어디까지나 바르고 정확하게 記述되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20여년전의 일」들에 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당시 참모총장으로서 朴正熙소장의 쿠데타 계획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동조했다는 얘기들은 한갓 추측일뿐입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추측에 대한 그의 불만強度는 매우 높았으며 그는「5·16」을 꼭「쿠데타」로 표현했다.

『나는 自由黨시절 李起鵬씨와 친했어요. 그래서 張勉정권이 들어서자 참모총장이 될 생각은 아예 하지도않았어요. 내가 李씨와 가깝다는 것은 軍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내가 2軍사령관으로 있을때였는데 하루는 玄錫虎국방장관이 급히 만나자는 전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厚岩洞에있던 국방부청사의 장관실로 달려갔더니 玄장관이 대뜸「중요한 얘기가있어 불렀다。참모총장직을 맡아줘야겠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나는 놀라 사양했어요』

그의 얘기에 의하면 당시 군내부는 金鍾泌중령이 중심이된 16명抗命사건(整軍파동) 등 복잡한일이 많아 참모총장이 2~3개월에 한번씩 바뀌었다고한다. 李鍾贊참모총장이 3개월, 崔榮喜참모총장이 2개월째였는데 그에게 大命이 떨어진것이다.

『4·19직후의 宋堯讚장군부터 시작, 1년도 안되어 나까지 포함하여 4명이 차례로 총장을 맡게된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안서더군요. 그래서 「현사태를 수습할 자신이없다」고 사양했더니 옆에앉아있던 金業국방차관이 「장관이 하라는데 군인의 신분으로 사양하는것은 있을수없는일」이라며 권유하잖아요. 그래서 임명된것입니다. 물론 張총리와 玄장관이 어떻게 의논했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이어 그는『내가 張총리와 가까와 참모총장에 임명됐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張총리가 自由黨치하의 부통령시절 巡和洞공관으로 3군주요지휘관을 초청, 저녁대접을 할때 처음 만났을뿐 한번도 만난적이 없었다』며『나를 참모총장에 임명한것은 張총리가 아니라 玄장관이라고 표현하는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렇게張勉정권밑에서 뜻하지않게 참모총장이 됐읍니다。군인으로서 최고영예직인 참모총장이 되었는데 내가 무엇을 더 바랄게 있겠읍니까. 무슨자리가 또 탐이나서 쿠데타에 동조한단 말입니까. 그건 그사람들(5·16주체)이 한쪽으로는 5·16을 합리화시키고 다른편으로는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假說에 불과한것입니다』

─5·16擧事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대해.

『한마디로 말해 군일부에서 쿠데타를 준비하고있다는 소문은 들었읍니다. 그러나 누가, 언제 일으킨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소문을 듣고도 참모총장으로서 어쩔수 없었던 상황은 당시의 사회풍조와 軍의 분위기를 이해해야 수긍이 갈것이라고 말했다.

『4·19후유증이 절정에 달했던 그때는 상이군인 데모대들이 국회의사당 단상을 점령해도 정부가 손을 쓰지못할만큼 질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내부 여러곳에서「한번 뒤집어야지。울화통이 터져서…」라는 소리가 공공연히 튀어나왔어요. 따라서 그소리의 眞否를 확인할수가 없었어요。한마디로 군전체가 술렁거렸으니까요』

─그래도 보고받은 정보가 있었을터인데…。

『내가 가진 정보는 朴正熙소장系를 비롯한 3가지 였어요. 그래서 이 3개파중 어느쪽이 사실상의 준비를 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군수사기관을 총동원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읍니다』

그는이어『어느날 군수사기관 책임자가「朴소장이 거사를 꾸미고있다」는 보고를 해와「증거가 있느냐」고 물었더니「증거는 아직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래서「이 사람아, 증거를 가져오게 증거를…。무슨 증거가 있어야 대책을 세우지」라고 호통을 친적이있다』고 덧붙였다.

張씨는『국방대학원 졸업식이 거행되는 6월10일자로 軍장성대폭인사이동을 단행하면서 쿠데타관련說이 나도는 사람들을 閑職으로 보내거나 대기발령할 생각이었어요. 국방대학원 졸업식이 끝나면 으레 인사가 뒤따랐기때문에 자연스럽게 군의 동요도 줄일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5·16이 한달만 늦게일어났다면 歷史의 방향이 달라 졌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그의말은 계속된다. 『61년2월13일 참모총장에 임명되어 곳곳에서 터지는 쿠데타說을 캐느라 주요지휘관에 내사람을 앉혀놓을 틈도없었어요。그러던 어느날 검찰이 쿠데타와 관련된 민간인 1명을 잡았다는 보고를받았지요』

그는 즉시 李太熙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檢·軍합동조사를 제의, 李총장의 응낙을받고 수사요원을 파견하기직전 「고용의자가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때 군수사기관이 직접가서 신병을 인수받고 자세히 조사했었더라면 증거를 잡을수 있었는데…。바로 그 사람이 金德勝씨 (전馬事회장) 란것을 5·16후에 알았지요』

─혁명군 출동상황은?

『朴正熙소장이 2軍부사령관으로 내려가기직전 陸本작전참모부장으로 있으면서 작전계통 요소요소에 부하를 다배치해놓았고 육본작전참모부 안에도「朴正熙소장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었지요. 이들은 쿠데타멤버이거나 최소한 방관하는 자세를취했어요. 따라서 실무장교선에서 보고가 안되거나 되어도 중간고급장교선에서 멀어졌으니…。그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준비를하고 있었고 나는 참모총장된지 3개월밖에 안되었기때문에 데리고있는 부하가 朴소장에게 포섭된것도 몰랐어요。심지어 5·16당시 내가 가장 믿었던 장성및 영관장교들에게 진압명령을내렸을때 그들 일부마저 포섭된것을 알고 놀랐을뿐이었어요』라고 말한다.

『5·16이 일어나자 수도경비○사단(당시 사단장 李相國준장)에 朴소장부대를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사실 진압부대를 출동시키고보니 이미 육본을 비롯한 서울시내 요소가 모두 주체세력에 점령되어 「피를 흘리느냐, 아니면 사태를 현실 여건하에서 최대한의 노력으로 수습하느냐」의 문제가 가로막고 있더군요. 더우기 前方의 軍이 진압출동할 경우 휴전선 방위도 문제가 되었고요…。괴로왔지요』

그가 5·16革命軍을 인정하는 동의한것은 5월16일하오4시.

『5·16이 일어나고 이틀뒤인 18일 陸士生의 혁명지지 데모때였읍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육사생들이 東大門을 지나 시청앞으로 오고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직후 朴正熙소장이 들어와 나보고 한마디 해달라는 거예요. 軍의 정예인 육사생도들에게 5·16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였읍니다. 준비도 없이 그냥 시청앞으로 나갔죠. 나는 평소 3·1운동이 민족 최초의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육사생도들에게「3·1운동은 우리민족 최초의 혁명이었다」고 말하면서 그의의를 설명했어요』

─5·16후의 상황은?

『군부내에서 혁명주체와 나를 정점으로한 非主體간에는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었어요. 軍事당사자들은 5·16이 하나의 혁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革命답게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非主體들은 5·16을「정국안정과 치안유지를 위한 軍의 불가피한 출동」으로 해석해 알력이 많았어요』

『5·16직후 主體일부가 張勉내각에 참여했던 각료 26명을 모두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을 펴더군요. 나는 그 엄청난 후유증을 어떻게 감수하겠다는 생각들인지 모르지만 안된다고 펄쩍 뛰었지요. 그리고 朴소장에게「일을 벌였으니 수습할줄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어요. 나중에는 알아들더군요』

─5·16후 張총리와의 관계는?

『나도 급히 張총리를 만나야했지만 나보다 革命軍이 더급했읍니다. 계엄선포의 합법화를 위해서는 張총리가 나타나 閑襟을 소집, 追認을 해줘야 하니까요. 그런때 張총리의 행방이 五里霧中이지 뭡니까. 문득 張총리의 미국인 정치고문 위테카씨가 떠올라 그를 총장실로 불렀죠. 신변을 책임질터이니 나를 믿고 거처를 말해달라고 사정하자 한참만에 惠化洞의 수녀원을 알려주더군요』

급히 수녀원으로 달려가 張총리를 만난 그는 당시의 심정을『張총리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張총리는 하나도 원망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의젓하더군요. 내가「나와서 사태를 수습해주셔야겠다」고 말하자 반나절가량 沈吟하던 張총리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정치인으로 훌륭한 態度를 보였던 그의 자세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최고회의 의장을 맡았을때 최고회의 분위기는?

『그때 최고위원 대부분은 사회개혁만을 한후 軍으로 돌아가는것을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지요. 물론 그후 대부분이 생각을 바꿨지만』

─최고회의 의장시절 朴正熙부의장과의 사이는?

『사사건건 의견대립을 보였읍니다. 나는 軍政이 끝나면 5·16에 가담했던 군지휘관들을 모두 예편시킬것을 주장한데 반해 朴소장은 原隊復歸를 고집했어요. 원칙부터 어긋나니 항상 대립을 할수밖에없었읍니다』

─朴소장과의 관계는?

『나와 朴소장은 軍에있어 떨을래야 떨을수없는 인연을 갖고있었읍니다』

이대목에서 잠시 그는 懷古調가 되었다. 그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보자.

『내가 陸士중대장을 할때 그는 구대장이었어요. 내가 陸士교수가 되자 그는 중대장이 되었고 陸士부교장을 할때도 그는 陸士에 있었어요. 그와 나의 陸士근무가 후일 5期와 8期의 마찰을 가져온 원인중의 하나가 되기도 했지요. 왜냐하면 내가 중대장시절로 5期들을 맡았고 그가 중대장시절에는 8期들을 담당했었어요. 따라서 陸士를 떠난후 나의주변에는 5期가, 그의 주위에는 8期들이 많이 맴돌았고 따라서 5期와 8期가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생각하니 숙명이란것을 느낍니다』

그의 懷古는 오랜 세월처럼 길어졌다.

『朴소장이 陸本작전참모부장으로 임명되자 우수한 8期生들을 여러명 발탁, 작전참모본부로 데려간것도 이같은인연이며 따라서 5·16주체도 朴소장과 8期生들이 될수밖에없었어요. 朴소장과 나의 인연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가요. 朴소장이 麗水·順天 반란사건때 공산주의 동조자로 오해를 받아 예편되었을때 白善燁씨가 적극도와줘 陸本정보국 문관으로 취직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때 나는 陸本정보국장이었는데 그를 다시 現役으로 복귀시켜줄것을 참모총장에게 간곡히 부탁, 소령으로 입관시켰어요. 그후 내가 管區사령관을 할때 그는 나의 참모장이었고 2軍사령관으로 있을때 군내부에서 밀리고있던 그를 부사령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당시 朴소장의 성격을 잘 알겠네요.

『나는 그의 성격을 구석구석까지 알고있다고 자부합니다. 朴소장은 한마디로 短氣가 강했어요. 내 성격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지요. 어떻게 보면 내가 군인으로 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수 있어요』

이어 그는『5·16당시 참모총장이었기때문에 계엄사령관, 최고회의의장, 내각수반이 자동적으로 되었지 내가 요구한적은 없었어요. 따라서 實權도 없었다고 할수있지요』라고 말했다.

─軍政기간 종식문제에 대해.

『나는 빠른시일내에 軍政을 民政으로 바꾸자고 주장하면서 3·15와같은 부정투표를 없애기위해 군인들이 투표소를 지키되 군인은 나를 포함하여 누구도 투표권을 갖지 말자고 제의했읍니다. 여기에대해 朴소장은「빨리 民政으로 넘기면 또 삼이군인들이 국회를 점령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며 반대했어요』

그의 말은 계속됐다. 그가 자신의 위치가 불안해지기 시작한것을 감지한것은 최고회의가 최고회의의장과 육참총장직을 분리시키기로 결의하고 6월6일 金鍾五중장이 육참총장으로 임명되고 나서였다. 그는 그때를 가리켜『朴소장이 軍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사로 파악케됐다』고 말하고 있다.

─朴소장과의 秘話가 있다면.

『軍政기간을 둘러싼 의견차이를서로 솔직이 털어놓기 위해 중앙청회의실옆 별실에서 단둘이 對坐한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들은「중앙청別室密談」으로 불렀지요. 내가 軍政기간 6개월을 주장하자 朴소장은「6개월로는 혁명과업을 완수할수없다」고말하더군요. 한동안 실랑이를벌이다 내가「2년이면 충분하냐」고 묻자 朴소장은 아무 대답없이 앉아있다 자리를 박차고일어나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이것이 내가 朴소장과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한 마지막날이었읍니다』

─그후의 사태는?

『이일이 있은지 며칠후 그러니까 7월초로 생각되는데 나와 가까운 장성및 장교44명이 하룻밤사이에 모두 체포되어 구속되었어요. 다음날 나는 최고회의의장 사퇴성명서를 발표하고 집으로 직행했어요』

이부분에서 그는 격앙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곧 헌병들이 몰려와 집을 둘러싸고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요즘말로 軟禁이지요. 다음날 조카가 호외를 들고왔는데 내가 反革命음모를 했다고 발표되어있어「허허」하고 웃었지요. 3개월가량 연금상태에 있다 구속되었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나는 反革命쿠데타를 계획한 일이 없어요. 당시 재판기록을 보면 확연히 나타납니다. 죄목은 5·16때革命軍저지를 위해 한강다리에서 발포하게 한것과 음모를 꾸몄다는것 두가지 뿐이에요. 1심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2심으로 올라갔는데 반혁명음모죄는 起訴取下 하더군요. 그래서 사형은 면하겠다고 생각했지요. 왜냐하면 나머지 죄목은 혁명군저지뿐인데 5·16최고회의 의장으로 나를 추대해 놓고 후에 혁명군 진압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自家撞着 아니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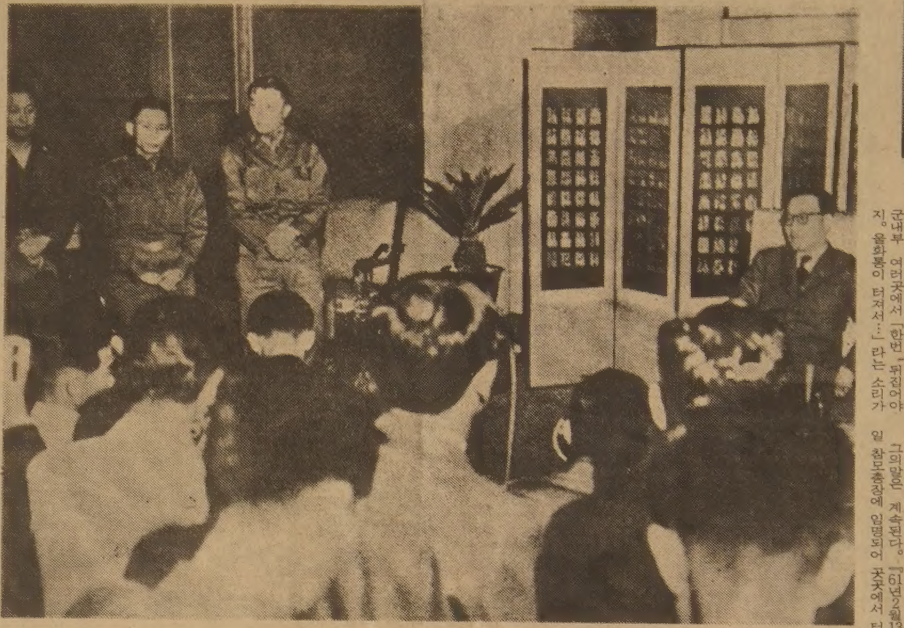
─석방된후의 과정은?

『교도소에서 나와 집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날 朴소장(그때는 朴의장이라고 불렀지요)이 사람을 보내 잠깐 만나자고해 奬忠洞의장공관으로 갔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朴장군이「지금 혁명이 여러가지로 좋지 않으니 잠시 외국에 나가 있는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더군요. 그래 공부하는 심상으로 美國에왔다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지요』

이야기를 마친 그는 지친 표정으로 한동안 깊은생각에 잠겼다.

그는『한간에서는 내가 美國에 있는동안 5·16장학금을 받았느니 朴대통령이 생활비를대어줬느니 하지만 나는 제3공화국의 돈은 하나도 받은적이 없다』며『그때문에 여기서 고생도 무척 많이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도움을 받지않은것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요즘 여기에서 일부 5·16주체들이 수십억씩 축재했다가 다시 사회에반환하는 신문기사를읽고 놀랐다』『부정부패 일소를 외치며 혁명한 사람들이 20여년후 그렇게 변한모습을 보니 착잡하다』고 입을 다물었다.



◇5·16혁명 3일만인 19일 下野성명을 냈던 당시 尹潽善대통령이 그다음날 청와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下野를 飜意한다고 밝혔다. 좌측에 張都暎당시최고회의 의장과 朴正熙부의장등이 배석해 있다.

修女院 張박사찾아가 收拾부탁

6월10일 軍首腦 대폭이동 계획했었지…

革命 한달늦었어도 歷史바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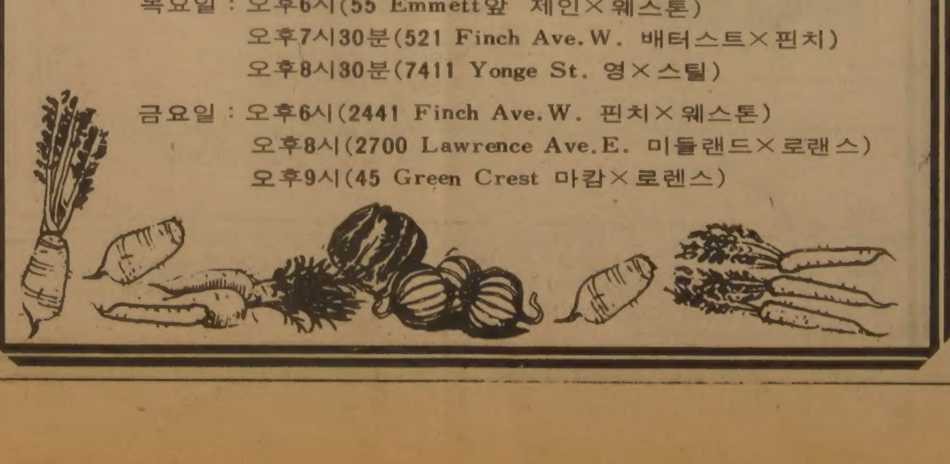
豫告

다음號는

5·16 이후 10年 激動의 日誌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위험신호: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봉학농장
(전화:1-775-6256)
긴 겨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첫주(3월4일)부터 매주 다음장소에서 무우, 김치, 깻잎, 마늘쫑, 짠무우 판매를 실시합니다.
수요일: 오후7시(700 Ontario St. 셔본×블루어)
오후9시(5 Capri Rd. EAST MALL)
목요일: 오후6시(55 Emmett앞 제인×웨스톤)
오후7시30분(521 Finch Ave.W. 배터스트×핀치)
오후8시30분(7411 Yonge St. 영×스틸)
금요일: 오후6시(2441 Finch Ave.W. 핀치×웨스톤)
오후8시(2700 Lawrence Ave.E. 미들랜드×로랜스)
오후9시(45 Green Crest 마캄×로렌스)



Young—Sook's Jewellery
보석상 개업특별봉사
오는3월1일부터 다운타운에 보석상을 개업합니다. 교민 여러분께 최저 가격으로 특별봉사코자 하오니 꼭 한번 들려주시거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금·은 취급
*품질보장
*뉴 디자인으로 마음에 맞게 해드림.
*옛날보석 개조 또는 교환 매매.
*보증서 발행

민영숙
(B)368-7961
(R)690-5217
Fir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Booth No. 10—No. 11
215 Yonge St.
(영×퀸)

5·16革命 그眞相을 證言한다

한국일보 특집판

5·16…美8軍과의 긴장8日間

當時 CIA責任者가 밝힌 軍事혁명 秘話

本社 단독入手

5·16군사혁명이 일어났을때 駐韓美大使館의 CIA최고책임자는 피어·드·실바(Peer de Silba)였다. 張勉총리가 16일새벽 황급히 숙소인 半島호텔을떠나면서 찾은인사가 바로 그였다. 실바는 웨스트·포인트를나와 OSS(전략정보국) 요원으로2차대전때原子彈제조작전(맨해턴計劃)에 참가했으며 그후 미국 중앙정보국(CIA) 창설요원이된다. 그는 60년 한국에 부임, 4·19의 소용돌이와 아이젠하워대통령의 방한을 지켜보았고 또 61년5월16일새벽 한강의 총성을 듣고 미국을위해 처음부터 활약했다. 62년 7월까지 한국에 근무한 그는 越南으로 옮겨 CIA최고책임자로 있다가 부상을입기도했다. 그후 미국본부에서 월남對策局특별담당관으로 일하다가 73년 명예퇴직했다. 그는 CIA가 73년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의회, 언론의 비난의 대상이되고 있을때 「서브·로자 CIA와 정보의 有用」이란 책을 78년펴냈다. 그는 CIA가 「더러운 일」만 하는곳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책을썼다고 밝히고 있다. 이책 중 17장은 쿠데타. 그는 이 부분에서 그가 겪은 정보원의활약상을 너무나 자세히 밝히고 있다. 한국의 5·16을 알려면 이책을 읽는것이 지름길이라고 미국의 한국학연구자들은 평하고 있다. 5월16일의 군사혁명 시발에서 시작하여 매그루더 8군사령관과 주한미대사관이 朴正熙소장의 혁명을 인정하기까지 숨가빴던 8일간을 그는 追進感있게 상세히 記述해 놓고 있다. 이책을 긴급入手하여 그의 證言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1961년5월16일. 朴正熙장군과 그와 뜻을 같이한 동료장교들은 張勉정부에대해 武力쿠데타를 일으켰다.

한국支部(미국CIA)의 우리들은 朴장군의 직속 참모의 일원인 某한국군장교로부터 수일전에 쿠데타에 관해 사전提報를 받았었다. 이 한국군장교는 지부의 나의 부하요원과 가까왔다. 나는 매카나기駐韓대사에게 이 정보를 통보했다.

매카나기대사는 이보고를 확인해볼 길이없어 잠자코 기다려보는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張총리에게 통보해주는것을 허락했다. 나는 나의 정보소스(出處)를 밝히지않은채 張총리에게 알려주었다. 나는 그에게 그와 그의 정부에대한 군사쿠데타가 계획되고있고 행동개시일자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상태라고 말해주었다. 張총리는 이 보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듯했다. 한국에서는 몇달전부터 쿠데타에 관한 다른 루머들이 亂舞했었다.

서울의 취약한 상황과 張총리에 대한 쿠데타의 가능성이 짙어짐에따라 나는 대사관 숙舍 제2단지(한국일보社건너편)에 있는 내집에다 小型송수신무전기를 설치, 대사관건물옥상에 있는 전용통신실과 연락할수있도록 해놓았었다. 전용통신실에는 두명의 무선사들이 밤낮없이 24시간 근무하도록했다.

문제의 그날밤 새벽 2시30분께 나의 무전기가 삑삑 울려 잠이 깨었다. 우리대사관옥상에서 무선사가 긴급 보고를 했다.

나는 무슨조처를취하든간에 대사관에가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나섰다.

대사관으로 가자면 국회와 덕수궁사이의 큰길을 지나가야 했다. 우리대사관은 이지점에서 왼쪽으로 1백미터떨어진곳(現在 美國국제교류처건물)에 있었다. 광화문大路에 이르렀을때에는 여러대의 군트럭과 지프들이 보통때에 늘상 붐비는 교차로에 이미 자리잡고는 口徑30밀리와50밀리기관총을세워놓고있었다. 한국군이 움직이고 쿠데타가 벌어지고있는것이 명백했다. 나는 「존·張」(張총리의 미국名)의 위치와 안전이 궁금했다.

나는 워싱턴에 쿠데타의 발생을 알리는 전문을 쳤다. 대사관엔 당직직원인 政務課의 하급직원 하나밖에 찾아볼수없었다.

이직원이 마셜·그린 대리대사에게 사태를 통보했고 아직 유엔군사령부및 미8군과는 접촉이되지않고 있었다.

서울의 도심지역에서는 계속45분동안 「따따다 따따다」하는 총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아낼수가 없었다. 우선 張총리한테 연락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의 사용전화번호를 돌렸다. 그는 미대사관의 길 건너편에 있는 반도호텔(현재 롯데호텔이 들어서있다)의 쉬트·룸을 하나 쓰고있었다.

전화벨이 울리더니 떨리는목소리가 나왔다. 내가 영어로 말하자 상대방쪽에서도 영어로 대답했다. 나는 내이름을 대고 『길건너 대사관에 있다. 張총리가 그곳에 있느냐』고 물었다. 저쪽에서 『張총리는 失踪했다. 그는 이곳에 없고 도주했다. 혁명이 시작되었다』고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나는 朴鐘圭소령이다. 국민 혁명을 대표한다』고 말했다.

나는 『쉬트·룸으로가서 당신을 만나보고싶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때가 새벽 5시께.

性向·背後싸고 엇갈린 情報
朴·매그루더面談 위기넘겨

8층 오른쪽 張총리의 쉬트·룸문을 두드렸다. 마른얼굴에 호리호리한 잘생긴 한국군 소령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분명히 신경이 곤두서있었고 기진맥진한 표정이었으나 무장은 철저했다. 모두가 초긴장. 나는 『朴鐘圭소령이냐』고 물었다.

그는 머리를 끄떡이고는 안으로 들어오라고했다. 朴소령은 『나는 朴正熙장군의 경호대장이요. 미국 포트베닝과 포트브래그의 空挺학교출신이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영어를 배웠소』라고 말하며 자기의 책임은 반도호텔에서 張총리를 체포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목멘 소리로 자기가 도착해보니 張총리와 그의 직속보좌관 몇명이 이미 도주했더라면서 朴장군에게 연락, 보고를 하려는 참이라고했다. 우리는 코피를 다마셨다. 나는 대사관명함 하나를 꺼내어 뒤에다 나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적어 전네주었다.

나는 『이제 사무실로 돌아간다. 당신과 朴장군에게 도움이 될일이 있으면 전화를 걸라』고했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電文을 더 보내놓고는 특히 朴正熙소장과 朴鐘圭소령에대해 신원을 자세히 알려줄것을 요청했다. 이들이 내가 그시점에서 알고있는 유일한 이름들이었다.

나중에 안일이지만 張총리는 총소리를 듣자마자 지프차를 타고는 나를 만나려고 우리대사관 숙舍단지로 왔었다. (나는 이미 대사관으로 가고있었다) 그는 정문이 닫힌뒤에 그곳에 도착했다. 그는 아무렇게나 옷을 주워입은데다가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정문에서 거절당했다.

그는 다시 서울동쪽에 있는 가톨릭여학교(갈멜修女院)로가서 피신했고 그곳에서 10일동안머물렀었다.

나는 8시께 출근한 마셜·그린 대리대사에게 지금까지 취한 나의 행동을 보고했다.

그날 아침 9시쯤 되었을때 해병대경비병이 대사관정문데스크에서 한국군소령이 내명함을들고와서 당장 나를 면회하고자 한다고 전화로 연락해왔다. 나는 그를 올려보내라고했다. 그러나 그가 무장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총을놓고 올라오라고 말했다. 방문객은 朴鐘圭소령이었다.

그가 크게관심을 쏟고있는것은 『朴장군의 쿠데타에대한 미국의 반응이 어떠냐』는것이었다. 나는 『모른다』고 말하고 『朴장군과 그의측근들에대해알려달라』고했다. 그는 자기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요, 미국의 친구며 강력한 반공주의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유부단한 張총리의 태도에 염증이 난 사람들이라했다. 한국에는 해야할 일들이 있는데 張총리능력으로는 할수없다고했다.

나는 잠자코 이말에 동의했다.

그는 한국은 軍이 정부를 이끌어야하며 朴장군아래에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러다가 그는 다시 화제를 미국의 반응으로 돌렸다. 미국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것인가? 미국이 軍部지도하의 한국정부가 탄생하더라도 이를 계속밀어줄것인가?

나는 우선 긴급한것은 미국대사관과 朴장군이 접촉의 길을 트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朴장군의 정치적 性向과 배경에 관해 들은 나의 전문에 서로 엇갈린 보고들이 들어왔던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보고들은 그를 공산주의자, 親共주의자, 反共주의자라고 하는등 전혀 종잡을수가 없었다. 무엇이건간에 그런주장에대한 확증이 없었다. 朴소령은 나에게 朴장군을 직접 만나보라고 시사했다.

그러다가 그는 다급하게 내가 먼저 만나보아야할 사람은 金鍾泌중령이라고했다. 그는 金중령을 朴장군의 인척이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있을뿐만아니라 쿠데타 자체의 主役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朴소령과함께 미지의 사나이를 만나러 국회의사당(太平路) 4층 큰방으로 갔다.

金鍾泌중령은 책상뒤에 앉아있었다. 그는 중키였고 체격은 가는편이었다. 얼굴은 童顔이었으나 조용하고 침착했다. 朴소령이 한국말로 나를 소개하자 金중령은 나에게 의자를 권했다. 朴소령은 통역을 맡아주었다.

대화의 주도권은 KCP(우리는 김종필-KIM CHONG PIL-중령을 그의 영문이름석자의 머리글자를 따서 간단히 KCP라고 불렀다. 이것이 나중 JP로 줄어든것으로 안다)쪽에 있었다.

그는 朴장군이 왜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왜 이것이 필요했는가에대해서 신중히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까운장래의 계획이무엇인지에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나는 그를통해 한국사람들은 다시한번 주체성을 확립해야하며 한국이 미국과 밀접한 유대와 우호관계를 가질것을원하나 이러한 유대는 상호존중과 평등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는것을 처음으로 들었다.

나는 『당신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통치할 책임을 떠맡았으니 대사관및 미군사령부와 우호적인 업무관계를 재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한국동란중에 피를흘렸던 한국과 미국이 敵對的인 관계를 갖게되면 이것은 비극이다』고 말했다.

우리의 첫대담이 자연스럽게 끝나자 金중령은 『우리가 함께 나눈 대화를 오늘저녁 朴장군에게 전하겠다. 내일아침 朴장군을 그의 지휘소로 찾아가 만날용의가 있느냐』고물었다. 나는 『만나겠다』고 했다.

나는 본부에다 그날의 사건들과, 내가 朴소령과 金鍾泌중령과 나누었던 대화와 내일 일어날일들에관해 긴 전문을 보냈다. 전문을 보내고난뒤에 대사관에 아직도 대리대사가 몇몇참모들과함께 남아있는것을 보고는 그들에게 그날 낮에 내가 한일과 워싱턴에보낸 보고서내용에대해 중점적으로 알려주었다. 그들은 모두가 긴장을 정신없이 일하면서 보낸뒤라 피로해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있었다.

그린 대리대사는 한숨을 쉬면서 일어서더니 천천히 왔다갔다 했다. 그는 매그루더장군이 미8군 사령관일뿐만아니라 유엔군사령부를 지휘하고있다는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이제 정말 몇가지 어려운문제에 당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화로 매그루더장군과 수차례 얘기를 나누었는데 매그루더장군은 한국군은 유엔군사령부의 휘하부대로서 자신의 指揮權아래 있는데도 쿠데타를 일으켰으므로 반란죄를 범했다는 태도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므로 매그루더장군은 朴장군을 만나지도않고 상대하지도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대리대사는 쓴웃음을 짓더니 매그루더장군의 정보참모는 朴正熙장군이 공산주의자의 배경을 갖고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입수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나는 여러정보를 종합한끝에 공산주의 지지자로 알려지고 사망한 사람은 朴正熙장군의 형님이라는것을 알아내었다.

나는 朴장군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며 또한 개인적으로 공산주의자와 선을 대고 있거나 그들에대해 共鳴하고 있지도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이 모든것을 대리대사에게 말했다.

그는 내가 매그루더장군을 만나 그의 태도를 돌려놓아야 한것이라고 말했다. 이러는사이에 국무성으로부터 대사관은 앞으로 『지시가 있을때까지 朴正熙장군을 상대하지말라』는 통보가 날아왔다. 국방성의 자문을 받은것이었다. 대리대사는 이러한 미묘한 정치적인 배경을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내가 金鍾泌중령, 朴鐘圭소령과 접촉을 유지하기를 원했다.

한때 "美大使館 봉쇄하겠다" 「流血」우려…수습서둘러

다음날 아침 정각9시에 朴소령은 朴장군을 면담시키기위해 대사관에 나타났다. 朴소령은 나에게 지프의 오른쪽좌석을 권했다.

육본에 도착하니 기관총들이 철조망을 따라 설치되어있었다. 모든문은 잠겨있었으며 순찰병들이 돌고있었다. 朴소령도 통과할때마다 신분증을 보여야했다. 육본구내에는 탱크, 병력수송용장갑차, 트럭들이 가득했다. 군용야전전화선들이 전신주마다 연결되어있는것이 눈에띄었다. 朴소령이 장교와사병들로꽉찼고 군지휘소의 활기가 가득찬 2층에있는 한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후에 다시나와서 나에게 들어오라고 손짓을했다.

朴장군은 둥근테이블뒤에 있는안락의자에앉아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일어서더니 손을 내밀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朴장군은 영어를 거의 쓰지않았다. 이유는 답변을 하기 전에 대답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그는 영어를 상당히 알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張총리에대한 쿠데타가 왜 필요했었던가에대하 이유에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金鍾泌중령이 전날저녁에 제기했던것과같았고 문제설명은 열변이었다.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한·미간에 서로 접촉과 우호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것과 건설적인 관계를 확립해야한다는것. 그는 이미 매그루더장군과 접촉하려고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불평을털어놓았다. 매그루더장군이 『너무나 바쁘다』는 통고를 해왔다는 것이었다. 朴장군은 『나는 어느때든지 매그루더장군을 만날용의가있소. 물론 그린 대리대사와도 만날 용의가있소』라고했다. 그는 『당신이 내생각을 전달해주구려』라고말했다.

그는 내가 하루, 이틀뒤에 다시 그를 만나 그의 협조제의에 대한 반응을 알려줄수 있느냐고 물었다. 朴소령이 『당신이 어느때든 나에게전화를걸면 장군님과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朴장군은 북한의 기회주의적 침략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쿠데타이후 첫8일동안에는 미국대사관, 미군사령부, 한국의새로운 군사평의회사이에 이상한긴장된 대결이 있었다. 매그루더장군은 흔히국방성이 야전지휘관에게보내는 무비판적인 지지를 동원하며 따라서 쿠데타를 일으켰으므로 사실상 반란을 일으켰다는 태도를 고집하며 朴장군과 면담하기를 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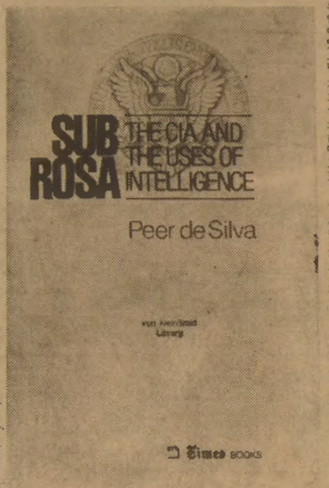
나는 金鍾泌중령과 여러번 만났고 朴소령하고는 더욱 자주만났다. 어느날 朴소령과 나는 덕수궁정원에 앉아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접촉이단절된 이상한 상황에대해서여러가지대화를했다.

천성이 흥분잘하고 격렬한 朴소령은 朴장군에게 한국군1개대대를 동원, 미대사관을 포위하고 그의 표현대로하면 『미국측이 제정신을 차려 朴장군을 인정할때까지』 아무도 출입을 하지못하도록 봉쇄할것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맙소사! 이런사태가 더 오래가다가는 우리관계가 유혈로끝나겠구나하고 걱정했다.

나는 朴소령이 분통을 터뜨렸다는것을 대리대사와 매그루더장군에게 보고했다. 이때쯤에는 미군사령부와 대사관도 이러한 교착상태가 계속되면 중대한 사고를 가져올수있다는것을 깨닫고 있었다. 다행히 이 시점에서 朴장군의 배경과 사망한 그의 兄의 배경이 드디어 명백히 밝혀졌다. 대리대사는 몹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朴장군과의 면담주선을 요청했다. 매그루더장군은 자신이 갖고있는 광범한 軍접촉선을 이용, 朴장군과 면담하기로했다. 朴장군은 즉각 매그루더장군을 방문했다. 심각성을 내포했던 위기는 모면했다. 미국측은 군과 외교양면에서 재빨리 움직여 朴장군과 군사평의회및 그의 자문단들과 유대를 확립하게되었다.

그리고 6월24일 새뮤얼·버거대사가 부임했을때 朴장군과 미국관계는 새 차원으로 달렸다. 나는 62년7월 한국을 떠났다.

◇5·16당시 貞洞의 美大使관저。



◇5·16쿠데타— 미국의 승인을 받기까지 歷史의 分水嶺—쿠데타 세력과 미국정부와의 對話空白8일(?)。미국측 징검다리 역할을한 美CIA 한국지부장 피어·드·실바의 證言。사진은 秘話가 담긴 그의著書。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50>

朴婉緒 作 / 金光培 畫

숨바꼭질 ㊲

그러나 그게 어떤 계기가 될까봐 목이는 재빨리 자신을 도사렸다。

『누가 보아도 어울리는 한쌍이란 게 무슨 뜻이지? 오빠』

『이를테면 세상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럴거란 얘기지 뭐?』

일환이가 어벙하게 대답했다。

『고아는 고아끼리 어울려야한다는 세상사람들의 생각이 난 싫어。난 힘자라는데까지 세상사람들의 그런 기대에 어긋나 보일거야』

『내가 싫다는 소리니?』

일환이가 점점 더 어벙하게 선량한 눈을 꿈벅거렸다。

『뭘, 그렇지도 몰라。우리는 고아니까 세상사람들의 동의(同意)를 부모의 동의만큼이나 중요해야될지도 모르지만, 좋은 자식들이 부모의 동의에 감지덕지하는 것도 우선 저희들끼리 좋고 나서가 아닐까?』

목이는 자기가 생각해도 좀 심하다싶을만큼 일환이를 매몰차게 굴면서도 실상은 일환이보다는 고아는 고아끼리 어울리기를 바라는 세상사람들의 상식에 맹렬한 적의를 품었다。

『목이 넌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니?』

일환이가 낭패한듯이 중얼거리고 그윽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못생기고 더러운 얼굴과는 상관없이 그의 시선은 아름다왔고 마디를 저리게하는 슬픔이 서려있었다。

떨어놓고 쳐다보기를 조금 망설이고 바라봐도 그는 덩치부터가 위압적이었다。거구(巨軀)에다 잔뜩 찌푸리고 웅크려앉은 모습이 산더미처럼 듬직해서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자기따위는 훅 날아갈것 같았다。

목이는 아직 남자경험은 없었지만 나이에 비해, 남자란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를 알고있었다。대부분성적(性的)인 거였고 틀림없이 고아사회에서 그런 조숙은 피할수가 없었다。그녀가 알고있는대로라면 남자에게 지금은 절호의 기회였고 여자에겐 절대절명의 위기였다。외딴 산중의 빈집이었고 힘에 있어서 그녀가 그의 적수가 될수없음은 겨루어보기 전에 명백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가 그러지않으리라는 확신이 어쩔수없이 그녀의 슬픔에 보탬이 되고있었다。

『가고싶어』

『그래, 가자』

그러나 일환이는 일어서는 대신 목이로부터 저만치 물러나앉아 주섬주섬 얘기를 계속했다。

『내가 너무 급하게 굴었나보다。용서해주라。요새 내가 뭔 일이 술술 잘풀리다보니 뭐든지 단숨에 밀고나가기만하면 안될게 없다싶었던게 잘못이었어』

『오빠 하는 일이 뭔데?』

『보일러를 만들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스팀난방 수도시설을 청부맡아 공사도 해주는 점포를 겸한 공장의 기사야。처음엔 점포하고 공장을 휘두루 뛰는 심부름꾼이었는데 열심히 뛰다보니 주인눈에 들었나봐。또 그방면에 소질도 있고해서 작년부터 기사대우야。웬만한 공사는 나혼자 전적 내서 시공까지 할수있거던。그사업이 너무 유망해。몇년만 더 열심히 뛰면 나도 내 공장을 하나 가질수 있을것 같아。지금은 기사지만 공장이나 하다못해 구멍가게라도 하나 가져봐。담박 사장이다 너』

◇지금까지 골동기에서 알려진 최대규모의白磁大壺。18세기에 제작된 이항아리는 높이 47·2㎝、胴徑42·5㎝、구경 19·9㎝。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14局 第3譜 36~66 (각 5시간 덤 5집반)

白(4段) 鄭壽鉉〈2勝2敗〉
黑(7段) 徐奉洙〈2勝1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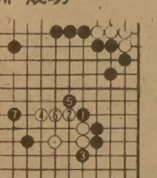
우변의 따갈한 黑세속에 白36으로 깊숙이 침입한데서 한바탕 불꽃 튀는 공방전이 예상되었는데 결과는 뜻밖으로 白이 쉽게 안정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黑은 외곽을 철통같이 에워싸는데 그치고 만셈。이것으로 전체형세는 黑의 5집반 덤이 염려된다는 줄론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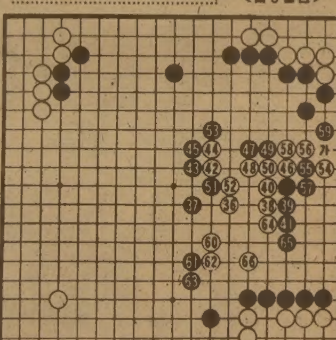
그렇다면 黑이 어디에선가 잘못을 범했다는 결론인데 그것은 다름아닌 黑41。이수로는 참고도처럼 黑1、8으로 두드리고 5、7로 추격을 할시기였다。

第4단도 黑이 참고도처럼 두어오면 뒤가 난처하다고 조마조마 했다가 다행히 黑41의 완착으로 생기를 얻었다는 이야기인데 이후의 과정에서 白도 파격한 수를 두었다。

黑44로 45자리에 젖히면 黑44를 당하니 우선타당하다 치고 白46이 문제。이수로는 47자리에 뛰어 일찌감치 안정해야 되었다는 줄론이다。白46으로 인하여 黑47이하 53의 좌변한 공격을 받아 한때 아슬아슬했다。黑55、57은 얄궂은수。그러나 다음黑59로써 몽땅잡자는 수단이다。따라서白도 「간」자리를 잊지못하고 60이하66까지 살아버렸던 것이다。【一凡】



白敵中、自活에 成功



뉴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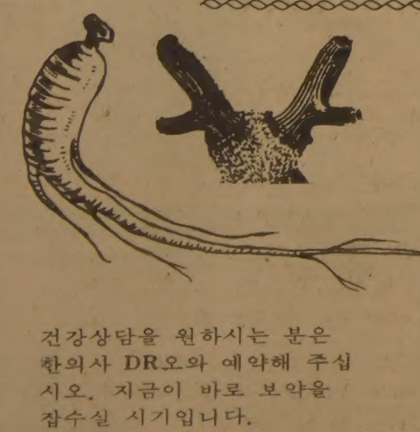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中國良藥 大量供應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트로피 & SPORTS—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歷史의 기록은 正確해야"

高大 교환교수로 一時귀국한 金雄洙박사

5·16때 軍團長…한때 囹圄

날 낳아준 祖國 잊어본적없어

"젊은이에 배운知識 환원"

인터뷰

◇5·16직후 한때 囹圄생활을 한뒤 예비역 소장으로 뒤늦게 渡美留學길에 올랐다 20년만에 經濟學교수가 되어 귀국한 金雄洙박사.

『정말 조국의 모습이 너무나 변한데 놀랐읍니다. 발전소식은 늘 듣고있었지만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변했을줄은 예상못했지요. 서울에 도착한날 故國에돌아왔다는 흥분으로 잠을이룰수가없었읍니다. 반가운 친척과 친지들을 만날생각을하니 그저 기쁘고 가슴이 설레 이더군요』

지난週末 20년만에 귀국한 金雄洙박사(59·예비역 육군소장·現워싱턴가톨릭大교수)는 그저 모든것이 놀랍고 반갑기만하다고 상기된 표정을 짓는다.

예비역將星이 미국 留學을떠나 학業에 정진, 경제학박사학위를 얻고 유수한 대학의 正교수(經博)가 되어 잠시 귀국한것이다.

『지난72년 집안의 憂患으로 10년만에 잠시귀국, 며칠간 머물렀지만 아무도 외부인사와 만나지 않은채 총총히 돌아갔지요』

그래서 이번 방문은 「20년만의 나들이」라고 말한다.

『밖에나가서 나를 낳아준 조국을 한번도 잊은적이없었읍니다. 물론 언젠가는 돌아올생각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제가 배운 지식과 학문을 전수해주고 싶은생각이 간절했었읍니다. 마침 오래전부터 친분이있는 金相浹총장의 초청으로 휴가기간을 이용, 한학기동안 高大에서 강의를 맡기로했읍니다』

金박사는 벌써부터 처음으로 조국강단에 설생각을하니 마음이 설레고 떨리기까지한다고 환하게 웃는다.

5·16당시 ○군단장이었다가 反혁명사건에 연루, 囹圄생활을했던 그는 마침 주요신문들이 연재했던 5·16直前後에 관한일들에대해 말하고 싶지않다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

『史料의 정리가 아무리중요하더라도 아직은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제의 일들이 오늘의 상황에서 照明함으로써 내일의발전을 도모한다는 깊은뜻을 헤아려보기도하지요. 그러나 역사의 기록이 정확해야하고 또 사회나 국가에 害로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大前提가 先行되지않는한 그의미는 없게됩니다』

굳이 「時期尙早論」을 강조하는 金박사에게 지난일들에관해 몇가지 대목에관해 묻자 깊은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5·16직후 야전사령군의 지휘관으로서 상황판단은.

『5·16전날인 15일, 原州야전군 사령부에서는 사령부산하 사단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모였읍니다. 16일의 軍지휘관 회의때문이었지요. 16일 새벽4시께 비상이 걸렸는데 「서울에서 혁명이 났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인 상황보고는 없었으나 정보보고만으로 朴正熙장군 일행이 주동이 됐다는 것을 모두가 감지하고 있었읍니다.

무엇보다 상부의 지시, 즉 「명령」이 필요했읍니다. 나로서는 야전군 사령부산하 군단중 내 휘하의 포병단이 유일하게 혁명에 가담하고 있다는 정보 보고가 있었기에 상부의 지시가 더더욱 절실했지요.

야전사령관 회의가 소집됐으나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채 어떤 지시사항이나 훈련도 마련치 못한 상태였읍니다. 나는 먼저 L19便으로 내가 군단장으로 있는 ○군단으로 향했읍니다.

—이때부터 「독자적인지휘」를 했는지요.

『적지않은 내 부하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에 곤혹이나 고심했었지요.

도착 즉시 전장병을 연병장에 집합시킨뒤 사건의 개요를 대충 알려주고 「이럴수록 지휘계통을 밟아 국가에 충성을 다하자」고 훈시를 했읍니다. 이어 참모회의를 소집해서는 이번일이 훗날 역사에 어떻게 조명이 될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贊言을 해달라」고 호소에 가까운 지시를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假想이 바삐 交叉했지만 어느쪽이든 일방적으로 선택키 어려운 대단히 괴로운입장이었읍니다.

만일 실패했을경우「부하들이 희생당한다」는 上司로서의 갈등이 크게 엇갈리더군요. 그러나 마지막 결단은 본인만이 내릴수밖에 없었읍니다』

—反혁명사건의 공소장에는 서울의혁명군에 반격을시도했다는데.

『글쎄요. 상부에서는特別한 방향제시가없는채 야전군사령부에서 「非常을걸지말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러나나는 「有事時의상황」으로판단, 나의군단휘하에 비상을 걸었읍니다.

군사령부의 지시와 나의 판단은 엇갈렸지만 분명한 것은 「敵의 主攻防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우리군단의 戰列을 흐트려서는안된다」는것이 非常명령의 전부였읍니다』

—反혁명사건의 죄목은 그것만인가요.

『가장큰 죄목은 「三千里」기사사건입니다. 5·16나기전해 여름 당시 「三千里」라는 잡지에 「군부와 族靑系합세음모」云云하는 허무맹랑한 기사가실렸지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모함謀略의 기사였지요.

웬만하면 참으려 했지만 문제는 기사내용중에 나를 포함해 朴모 鄭모장군등의 이름이 버젓이 제시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 崔慶祿참모총장에게 달려가 「이럴수가 있느냐」고 호소를 했는데 「우리는 서로를 잘알고 있으니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5·16혁명이 난지 3일뒤 「張都暎참모총장이 만나자고한다」는 전갈이 왔어요. 일부에서는 깊이 생각해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휘관으로서의 기본자세는 「결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세는 흐트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었고 이때도 평범한이 길을 택하기로 했읍니다. 19일 서울에 올라가니 곧바로 수감하더군요』

金박사는 이뒤 6개월가까이 영창생활을하다 起訴유예로 석방이 됐다가 1개월뒤 다시 구속, 10년刑 선고를 받았다가 이듬해 5월16일 刑집행정지로 석방이된것으로 기록되고있다.

20년 미국생활을 하면서도 시민권을 받지않은 金박사는 나이를 먹을수록조국에 봉사할수있는 길이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되더라고 말했다.

『이번기회에 조국의 학자와 젊은학생들과 폭넓게 교류하며 열심히 강의를할 계획입니다』 그는 발전한 조국에 뒤떨어지지않기 위해서도 열심히 모든것을 돌아보겠다며 자리를 일어섰다.

【李成俊기자】

나의 이력서

金蘇東 ④

〈筆者·金蘇東〉

映畵감독의 꿈

高普시절 漢詩로 예술의 脈 가꿔

일제에 대한 반항이 크면 클수록 학구열도 뜨거웠다. 배움만이 日帝의 굴레에서 벗어날수 있다고 생각했다. 몇년간 몸과 마음을 불태운 예술의 열의도 가슴속에서 타올랐다. 이런것들로해서 나는 포기하려 했던 학업을 계속하기로 방향을 바꾸었다. 나는 20여일만에 다시 花洞교사로 돌아갔다.

나의 영화예술의 길은 제일고보시절부터 비롯된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다. 회상의길목에서 간혹 왜 긴세월을 영화예술에 몸과 마음을 불살랐나하고 자문해본다. 해답은 「좋아서」였다. 또 하나가 있다면 조부와 엄친의 영향에서다. 高普시절 엄친께서 해설해주신 한시 한귀절이 떠오른다.

「달은 배를 비추고 장강의 물은 굽이굽이 흘러간다. 아득한 내고향 그어디메쯤인가, 구름덮인 산만 첩첩하고 오, 시름겨운 밤이여」(孤亭孤月照行舟 寂寂長江萬里流 鄕國不知何處是 靈山深處使人愁).

달밝은 밤, 장강의 물결을타고 먼 타관땅으로 가는 외로운 나그네의 향수를 담은 한폭의 그림이라 하겠다. 방학이 끝나고 서울로 가는 기차에서 차창에 스치는 풍경을보며 이 한귀절로 소년의 향수를 달래곤했다.

「흰 구름 첩첩이 쌓이고 갈길은 천리, 뒤돌아보면 내고향그리워라」(白雲疊疊路千里, 回首東南思故鄕).

高普5학년때 추풍령에서 읊어본 졸시 한귀절이다. 당시 학우들은이 같은 漢詩로 마음의 정을 주고받고 反日사상을 가슴에 새기곤했다.

「무정한 풍우가 푸른숲에 몰아치면 잎새밑에 핀 붉은꽃한송이 어디서 찾아보랴」(無情風雨打千林 葉底殘紅何處尋).

지금은 저승에 있는 동창 朱昌煥(醫博)이 光州학생사건으로 경찰서에끌려간 학우의 아쉬운정을 담은시다. 「無情風雨」란 무자비한 왜경을 표현했고,투옥된 학우를「殘紅」에 비유한 것이다.

高普시절 우리는 어둡던 속에서도 시를 쓰며 정서를 가꾸었다. 이러한 정서의 양식은 지금 생각해도 추억의 한토막만으로 버려질수없는 값진 것이다. 그때의 정서생활이 내 예술의 맥을 이루어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高普 3·4학년무렵, 東京의 출판사들이 전집물을 싼값으로 많이 팔았다. 50전짜리 문학전집과 1원짜리 현대극전집을 우편으로 받는 날이면 밤새워 탐독했다. 세계 문화전집을 독파한 것도 이때다.

동소문밖 삼선평(지금의 敦岩洞)의 성곽근처에는 잔디밭이 많았다. 일요일이면 학생들이 모여 책을 읽으며 토론을 벌였다.

「죄와 벌」의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범죄와 인간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결론도 내리지못하는 인생문제를 지껄였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살인강도행위를 욕하면서도 그럴수밖에 없었던 사회상에 동정을 보내기도 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처한 상황과당시 우리나라 청년이 숨쉬고있는 현실을 비교하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50년전의 얘기지만 디스코춤이나 팝송을 즐기는 요즘의 고교생들과는 격세지감이 있는듯하다.

문학만이 아니었다. 영화얘기도 토론의 꽃이었다. 영화한편을보고 나름대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논리를 펴던 옛친구들의 모습이 눈에보이는듯하다. 친구들이여, 어디로 갔는가. 외롭구나.

맑은 물이 흐르는, 세검정, 우이동계곡과 북한산성터도 대화의 광장이었다. 요즘의 학생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산수좋은자연속에서 인생과 예술논을 끝없이 펼치곤했다.

그 시절, 조선극장(現예총회관자리)에서는 「東道」(원제 Way down East)가 상영중이었다.

학교에서는 영화구경을 금지시키고있어 선생들의 눈을 피해 구경을 갔다. 여주인공 릴리언·기시는 당시 「아리랑」에 데뷔해서 장안의인기를 모았던 申一仙보다도 신비롭게 보였다.

릴리언·기시의 청초하면서도 가련한 모습은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고, 영화감독이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심어주었다. 지금도 얼음위에 실려 나이아가라폭포를 향해 떠내려가던 여주인공의 모습이 눈에선하다.

◇필자에게 영화감독이 되려는 꿈을 안겨준 영화 東道(Way down East)의 한장면. 가운데 서있는 사람이 여주인공 릴리언·기시이다.

「東道」 女주인공 청초함에 魅惑

한국팀 守備·體力이 약하다

——印 네루컵蹴球서 드러난 문제점

先制골 後半 못지켜

上昇 中共勢 위협도

젊음과 고른攻擊力 밑천

◇위기모면 한국팀 골키퍼 鄭聖教(왼쪽두번째)가 中共선수와 같이 점프하여 공을 펀칭,위기를 막아내고 있다. 【캘커타1日AP電=聯合】

한국 대표 축구팀은 금년첫 해외원정대회인 제1회 네루 골드컵 쟁탈 국제축구대회(印度 캘커타)에서 예선전적 1승4무승부를 기록, 예선3위를 차지 함으로써 결승전진출에 실패했다.

한국을 비롯하여 주최국 印度, 中共, 우루과이, 유고, 이탈리아등 6개국이 출전한 이대회는 오는11월 印度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강화훈련을 시작한 한국대표팀의 전력을 테스트한다는 의미에서 관심을 모았으나, 끝내 우루과이와 中共에게 결승진출권을 뺏기고 말았다.

예선 5게임에서 한국은 이탈리아에게 4-2로 승리했을뿐 印度, 우루과이, 유고, 中共과의 대결서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특히 무승부를 기록했던 4게임 모두 한국이 선제골을 넣어 게임을 리드했다가 막판에 추격을 당해 실점,후반에 약한 면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선수들의 체력이 아직도 만족할만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반영해 준것이며, 수비에 문젯점이 있지 않은가하는 의문을 일으키게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해11월23일의 소폭개편으로 과거보다 상당히 젊어졌으나 전체적으로 경기경험과 노련미가 부족하여 앞으로이를보완할 대책이 시급하다. 미드필드에서 재치있는 配球로 활력을 넣어주었던 HB 趙廣來가 몸의 고장으로 뛰지못한것이 큰 타격이었다.

이번대회서 기록된 한국의 10득점을 분석하면 崔淳鎬 3골, 丁海遠·李泰昊 각2골, 黃石根·鄭鍾洙·張外龍이 각1골로 득점력이 골고루 분산되었다.

中共의 상승세도 주목되고있다. 中共은 1일 우리나라와의 예선 최종전서 1-1로 비김으로써 2승3무로 우루과이에 이어서 예선2위를 차지,결승전에 올랐는데 유럽전지 훈련등을통해 그들의 전력이날로 강화되고있음이 드러났다.

한국은 78년 방콕 아시안게임과 79년1월 아시아선수권대회 지역예선전서 中共과 맞서 두게임 모두 1-0으로 이겼으나 中共의 전력상승 페이스로 보아 앞으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따라서 中共을 물리치기 위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것이다. 中共은 스페인 월드컵 예선 최종경기에서 뉴질랜드에 밀려났지만 아시아지역에서는 무시할수없는존재가되었다.

金正男코치는 네루 국제대회 출전에앞서『오는 6월 서울서열리는 대통령배 국제대회가 끝나면 한국팀의 전력이 안정된 상태에 들어 갈것』이라고 밝혔는데, 경험과 기술의 축적을 통해 印度 아시안게임 때까지는 손색없는팀을 만들어 우승목표에 도전 해야 할것이다.

한국팀은 오는 7일과 10일 이라크에서 이라크 대표팀과 두차례 친선경기를 벌인후 13일 귀국할예정이다. 【琴】

블론디 딘·영作

구독신청은 533-2361

"이번 토요일에 줄리어스에게 깜짝놀랄 생일파티를 해줄 작정이라우"

"춤추고 술마시고 흥청대고 수다떨고 말다툼하고 짓궂은장난하고 그런따위짓은 이파티에 결코없을테고"

"우리는 축제기분에젖을거야!!"

"어떻게요?"

◇63회 전국 체전 심벌 마크.

올해 國體 심벌마크 決定

거북선 龍머리를 디자인

오는10월 馬山을 비롯하여 慶南 4개도시에서 펼쳐질 제63회 전국 체육대회의 심벌마크가 2일 확정됐다. 제63회 전국체전 준비위원회가 만든 이마크는 李舜臣장군의 혼이 담긴 거북선 용머리를 성화속에 변형하였고 성화밑의 물결은 3면이 바다에 접한 慶南의 특성을 상징하는등 전체적으로는 민주적 단합을 상징하고 있다.

올림픽 組織委대표 외국施設보고 귀국

金祥振 88년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차장을 단장으로한 7인시찰단이 2일저녁 KAL편으로 귀국했다.

시찰단은 올림픽을 개최했던 멕시코와 몬트리올市, 84년 올림픽을 개최하는 로스앤젤레스市를 방문했으며 귀로에 日本에들러 64년 東京올림픽을 치렀던 각종경기장시설을 살펴보았다.

裵基兌 10위 차지 世界J氷上

【인스브루크(오스트리아) 1日AP=聯合】 한국의 裵基兌는 28일 인스브루크에서 속행된 82년도 세계주니어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 5천m에서 7분44초71의 기록으로 10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裵基兌는 종합성적 1백73·670점으로 남자부문 12위를 차지하는데그쳤다.

黃永大선수優勝 大邱단축마라톤

【大邱=聯合】 3·1절기념제37회大邱市남녀단축마라톤대회가 1일 2백87명의 선수가 참가한가운데 大邱시청앞광장을 출발, 큰고개를 왕복하는 10㎞코스에서 벌어져 黃永大(육군방공포여단)는 31분22초로 일반부우승을 차지했다.

◇기록
▲일반부 10㎞=①黃永大(육군방공포여단)31분22초▲高등부=①朴成春(영남고)31분28초▲중등부=①배천근(성광중) 34분41초▲여자부 5㎞=①강현주(대명여중)19분9초▲초등부5㎞=①서영철(본리국) 18분6초

孫甲道등 9명派遣키로

월드컵 아마레슬링大會

대한 아마레슬링협회는 오는 27·28일간 16개國 도레도에서 개최되는 82년도 월드컵아마 레슬링대회에 주니어플라이급의 孫甲道(동아대)등 자유형선수 9명을 파견키로했다.

아시아·유럽·南北美·아프리카등 각지역대표들이 출전하는 월드컵대회에는 매년 日本이 초청을 받았으나 대회조직위원회가 올해 한국을 아시아지역대표로 초청, 처음으로 이대회에 나가게되었다.

◇한국선수단
▲감독=金益鍾▲코치=朴鍾化▲선수=孫甲道 安裕文 鄭永末 李正根 柳南卓 高鎬源 白銘明 咸聖元 金共正

한국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주간女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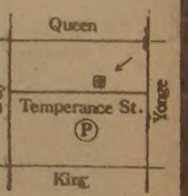
주간女性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SHANGHAI RESTAURANT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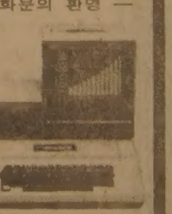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 · 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템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 366-2470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 및 Business 겸용
Apple II Plus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웅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北傀공작금 30萬弗받았다"
加犯人 게롤 빈서… 文智植과 관련

【터론토支社=柳承琨·趙美來기자】온타리오최고법원은 1일 상오10시12분(현지시간) 全斗煥 대통령위해음모사건 범인중의 하나인 알렉산더·마이클·게롤(33·터론토)의 보석청원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로버트·맥도날드검사는 범인 게롤이지난 6월 빈에서 북괴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30만달러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터론토경찰이 이사건담당 샌둘리와 오크경찰관은 게롤을 빈까지 미행, 북괴공작원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게롤의변호사 엘런·골드는 게롤이 단지 공작금목적이 아니고 북괴공작원을 속이기위해 돈을받은데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7만5천달러에 보석을허가, 게롤은 이날하오 2시 돈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한편 터론토경찰은 서울에서 체포된 文智植(30·냉동기술자)이 게롤과 관련되었다고 밝히고 文이 캐나다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범인인도를 요청하거나서울을 방문, 文을 수사할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게롤의 보석청구심이 끝난후 이사건을 담당하고있는캐나다연방경찰의 샌들리경사는 온타리오대법정밖에서 이사건과 관련, 1명이상의 북한인을 계속 추적하고 있으며 캐나다경찰의 수사대상에는 崔泓熙도 포함되어있다고 밝혔다.

샌들리경사는 또 이사건배후에 북한인이 개입되어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고 밝혔으나 그들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미도파 보석부
536-1692

加警察 외부간섭안받고 單獨수사
崔泓熙집중수사, 證據불충분 체포못해

全대통령 危害음모 매킬비나 搜査班長
本社 趙美來기자 터론토서 특별인터뷰

"관련 親北傀교포들 身元모두파악"

【터론토支社2日=趙美來기자】全斗煥 대통령위해음모사건을 수사중인 캐나다 특별합동수사반 짐·매킬비나 반장은 1일 본지사기자와의단독 인터뷰에서『全대통령 위해음모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수사반의 책임하에이뤄진것이다. 어떤 외부의 간섭을 받은바 없다』고 밝히고, 崔重華의 아버지 崔泓熙에대한 배후관계 수사에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킬비나 반장은 또 이사건과 관련, 수명의 캐나다 거주 친북한인사들의 신원을파악하고 있으나 밝힐단계는아니라고 말하고, 崔泓熙에대한 혐의는 있으나 증거가불충분해 체포를 보류하고있다고말했다.

매킬비나 반장은 마피아등 조직범죄담당 정예 수사요원 21명으로 구성된 캐나다특수수사반의 책임자로 평소공식적인 인터뷰를 꺼려왔다. 특히 한국기자와의 인터뷰는이번이 처음이다.

매킬비나반장과 가진 인터뷰내용은 다음과 같다.

―터론토의 일부 교민들은 한국정부가 수사에 간여해 북한당국을 곤란하게 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캐나다경찰이 어떤 경찰인지 모르는데서 나온 얘기다. 특히 우리수사반은 국제조직망을 가진 권위있는 수사대다. 한국정부가 수사결과를 어떤식으로 발표해달라고 요청할리도없지만 우리가 그에 응하지도 않는다.

―崔泓熙의 신변을 확보했는가.

◆崔에대한 혐의는 있으나 증거가없어 체포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근거없이는 체포하지 않으므로 그가 어디있는지는 말할 입장이 아니다.

―금년 1월 崔重華는 이북으로 갔다. 그때 왜 막지 못했나.

◆캐나다는 자유로운 국가다. 당시 혐의는 있었지만체포할만한 근거가 없었다.

―음모의 목적은 그밖에또 있는가. 全대통령외에 저격대상은.

◆법인들이 입건된 것은 全대통령위해 음모 때문이다. 기타사항은 밝힐수없다.

―한국에 수사원을 파견했는가.

◆필요하면 파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파견하지 않는다.

―야노버와 게롤은 실제로 범행하려 했는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로는 이들은 全대통령에대한 위해를 실행하려 한것같지는 않다. 주모자인 崔重華와 알려지지않은 북한인들을 속이려 한것같다.

―文智植은 현재 수사반이 확보하고 있는가.

◆그가 한국에서 체포됐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터론토로 왔다는 얘기는 모른다. 그가 이번사건에 관련됐는지 여부는 말할수없다.

―文외에 몇명의 교민들이 관련됐는가.

◆말할 수 없다. 崔重華와에는 아무도 조사받지 않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북한인들(Unknown North Koreano)」의 신분은 파악했는가.

◆그들의 정체·이름·얼굴등은 다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번사건이 연일 크게 취급되고 있다. 한국의 특파원들도 몰려왔다. 이 사실을 아는가.

◆이제 겨우 혐의자들의보석적부심이 열릴 단계이다. 사건수사는 아직도 멀었다.

死亡者통계 아직도 주먹구구
―死亡率·원인 정확한 분석체제 못갖춰
心搏動등 애매한記錄
「老衰死」웃지못할 病名까지

국민의 사망원인과 사망률등을 정확하게 분석, 집계한 「사망에관한 통계」가 아직없다. 특히 사망원인은 현행의료법(시행규칙)에따라 의사들이 사망진단서를작성할때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분류표에의해 사인을 분석, 기록하도록 규정돼있으나 의사들은 사인의 절반에가까운 43%가 호흡정지, 심박동(心搏動) 정지등 애매한 표현으로 기록하고있다.

"保健未開國"오명 빨리 벗어야

이때문에 보사부가 매년발간하는「보건사회통계연보」에도 국민의 사인별사망률, 사망자숫자등을 기록한 통계가없어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집에도 아프리카 몇나라와함께 한번도 수록이 되지않은 보건미개국이란 오명을 못벗고있는 형편이다.

뿐만아니라 이같은 사인(死因)통계가 없기때문에 국민을위한 각종 질병대책, 인구문제, 의료시설및 의료서비스의 적정수준 결정, 보건행정계획의 수립, 평가등을 내리지 못하고있다.

이에대해 의료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의료보험등 각종 시혜에만 노력할것이 아니라 사망원인등을 정확히 분석, 종합대책수립과 함께 의학연구를 위한 근본자료로 삼아야한다고 말하고있다.

우리나라가 국제공통사인 분류방식을 최초로 채택한것은 44년전인 1938년부터이나 그동안 명목에 그쳤었고 지난76년5월 제29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개정채택(제9차개정)한후 이를 번역, 경제기획원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고시, 79년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있다.

이국제분류방식은 예컨대 ▲순환기계(系)▲호흡기계, ▲소화기계질환등 17부문으로 크게분류(大分類)를 해놓은다음▲장관(腸管) 감염병등1백7개중(中)분류를거쳐 ▲위암, 콜레라등 구체적 질병은 9백9개로 분류(小分類) 해놓고▲다시 5천여개로 세분류(細分類)를 하도록돼있다.

또 분류각항목마다 코드넘버가있어 사망진단서에 사인(死因)을 기재할때 이넘버만을쓰도록해 전산처리할수 있도록한것.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형편으로는 9백9항목에 이르는 소분류는 당국에서도 의사들에게 권장할엄두도못내고 그렇다고 대분류나 중분류도제대로 활용이안되고있으며 흔히사용되는 병명만이라도 선행(先行)사인을 정확히 분류, 기재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형편이다.

또 WHO사인(死因)분류방식의 전면채택, 활용을 위해서는 분류코드 사용에따른 사망진단서의 컴퓨터카드화등 장비와 체제도 전혀 뒷받침이안돼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의사들이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엉터리로 분류하고 있는것은 20~30년전 의사들에게 심한편으로 사인분류에 꼭필요한 선행(先行) 사인란에 질병명을쓰는의사는 거의없고 선행사인과 중간선행사인을 「不明」으로만한채 직접사인을 「호흡정지」「심박동정지」「심장마비」등으로 기록해버리고 만다.

심지어 「노쇠사」(老衰死)등으로웃지못할병명아닌 병명을기재하는경우도있다.

이밖에 사망에관한 통계가 제대로 안되고있는 원인중의 하나는 사망신고가 제때(1개월이내)에 이루어지지않고 신고율 자체가 낮기때문.

보사부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사망신고율은 3년단위로 합쳐잡아야 85%정도에 불과하고 당년도 통계는 60%선이하로 저조해 1년을 단위로한 사망통계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말했다.

최근 의대를나온 젊은의사들은 의협(醫協)·보사부당국등으로부터 「사인(死因)명기」교육을 받아서인지 그래도 선행사인란에 병명만은 제대로기입해 사인분류가 가능해지고 있다.

서울 永登浦區 C병원 외과의사 宋모씨(37)는「사인(死因) 분류에 대해서는 대학시절 1~2시간 공부하는것이 전부고 실제경험을 통해 저절로 배우고들있는 실정」이라면서『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사인통계를 하루빨리 컴퓨터시설등을 갖춰 작성하려면 국제분류 방식을 전면 채택, 사용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兪晴錫기자】

先지망後시험 검토중
大學전후기도 재조정
李文敎 회견

李奎浩문교장관은『정부는 내년입시부터 현행과같은「선시험후지망」이 아닌「선지망후시험」형태의 제도실시를 검토하고있다』고 밝히고『그러기위해서는 현재와같이 거의 모든대학이 1차전형을하게되면 수험생들의 선택폭이 좁고 재수율이높아진다는점을감안, 내년부터 전후기를 재조정하는 작업을벌이고있다』고말했다.

내년입시에서 선지망 후시험제가되면 올해처럼 점수를 알고난후 전공학과를 선택하는것이아니라 적성에따라 전공계열을 먼저 결정한후 학력고사를치르고이성적에의해 진학할대학을선택하게된다.

李장관은 2일자 서울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대학의 자율성은 진리탐구를 위해 필수적인 특권이며 책임이기 때문에 앞으로 1·2개월안에 대학교육협의회를 구성, 문교부가 관장하고있는 많은업무를 이관해 대학의 자율성의 신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또『학원 소요문제에 대해 낙관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의지도 확고부동하다』고강조했다.

李장관은 이어『졸업 정원제는 대학교육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기위한 제도로서 앞으로 대학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면 졸업정원제의 형태도 달라질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하고『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이 탈락되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開學…새教室 새級友와 2일 개학한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교정에마련된 새교실배치도를 보면서 자기반을 찾고있다.【서울江南區盤浦국교에서】

새學期 스타트

2일 초·중·고교가 일제히 새학기를 맞이했고 일부대학들은 입학식을 가졌다.

국민학교는 지난21일부터 봄방학을 끝내고 이날개학, 어린이들은 새로운반에 배정돼 새담임선생님과 새친구를 갖게됐다. 중·고교는 이날 개학식과함께 입학식도가져 교정마다 활기에넘쳤다.

특히 이번 새학기부터는 머리형이 자율화돼 대부분의 중·고교생이 다른 모습으로 등교, 서로 신기한듯 머리모양을 살폈다.

한편 서울大, 延世大, 中央大, 慶熙大, 東國大등은 이날 신입생입학식을갖고 재학생의 수강신청을 받기시작, 캠퍼스는 긴 동면에서 일제히 깨기시작했다.

◇2일 문을연 한국일보 문화센터에서 등나무 공예를 익히며「배우는 즐거움」을 만끽하고있는 수강생들.

배우는 기쁨 만끽
「한국일보 文化센터」어제 문열어
55과목 1백12강좌 2천여명受講

평생교육을위한 새로운 광장인「한국일보文化센터」가 2일 한국일보 빌딩6층에서 문을 열었다.

본사가「문화시민의 생활대학」을 표방하고개설한 文化센터는 55개과목에걸친 1백12개강좌에 2천여명의 수강생이 등록, 이날 상오10시부터 강의에 들어갔다.

한편 한국일보 文化센터는 이날하오4시 강사진을 비롯한 관계자1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개관기념자축회를 가졌다.

全대통령 生計費보조 지시
歌曲「선구자」작곡자 趙斗南옹에

全斗煥 대통령은 歌曲「선구자」의 作曲者인 趙斗南옹(70·慶南馬山市新浦洞 삼익아파트1동1002호)이 지병인 중풍과 생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단는 보고를 받고 2일 趙옹에게 생활비를 보조하고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馬山市에 지시했다.

馬山시당국은 이에따라 趙옹에대한 生計지원대책을 마련하는한편 馬山시내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도록주선했다.

刑事재판 1審서 첫 궐석裁判열려
30代피고 執猶1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이후 처음으로 형사1심재판에서 피고인없이 궐석재판에의한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형사지법 金然泰판사는 2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소재불명으로 법원의출두통지에 응하지 않고있는 朴容吉피고인(36)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朴피고인등 9명에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두같은방법으로 이들의 출석없이 5명에게는 집행유예, 3명에게는 벌금형을, 나머지 1명에게는공소기각판결을각각내렸다. 지난해3월1일부터 시행되고있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는『형사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소재를 확인할수없을때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또 대법원규칙은 불구속피고인에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때로부터 6개월간 경찰에 소재수사를 의뢰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하고 2회의 공시송달절차(법원게시판게시)를 거친후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않을때는 피고인진술없이 재판할수있다고 규정하고있다.

등산 女教師 실종 冬死體로 발견

【江陵=[illegible]】봄방학을 이용해 강원五臺山에 등산갔던서울道峰국민교 여교사 李善華씨(23·서울城北區鍾岩2洞105의251)가 산속에서 조난, 실종된지 3일만에 동사한 시체로 발견됐다.

李교사는 지난달 27일봄방학과 연휴를이용,동료여교사인 金明子씨(23)와함께 강원溟州郡連谷面三山里 五臺山소금강 노인봉(해발1천3백48m)에 등산갔다가 27일하오7시께 노인봉에서 月精寺로가는 진고개를 넘다 길을 잃어 바위틈에서 하룻밤을 지샜는데 28일아침 몸이아파 움직이지 못하게되자 金교사가 혼자 하산, 인근산장에 알려 구조에 나섰으나 실종됐었다.

수색에나선 경찰은 이날낮12시45분께 노인봉남방1백m지점 바위밑에서 동사한 李교사를 발견했는데 李교사가 발견된곳에는 70cm가량의 눈이 쌓여있었고 평소 위험한 동산으로 알려진곳이다.

◇동사한李善華교사

8개大學長승인

順天大學 李相來씨
善牧神學大 李鍾興씨
釜山外大 朴華述씨
水原大學 崔榮博씨
아세아聯合神學大 韓哲河씨
湖南大學 李泰永씨
翰林대학 金鐸一씨
慶園大學 白勝基씨

문교부는 順天대학장에 李相來(56)전 順天농업전문대학장을 1일자로 임명하는 한편 善牧신학대학장에 李鍾興(61·천주교 大邱교구청)부산外國語大學장에 朴華述(59)盛蹊工專학장, 水原대학장에 崔榮博(56)水原工專학장, 亞細亞연합신학대학장에 韓哲河(58)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장, 湖南대학장에 李泰永(50)국토통일원통일연구소장, 翰林대학장에 金鐸一(54)한국인구보건연구원장, 慶園대학장에 白勝基 전미국 미드웨스턴大부교수의취임을이날짜로각각승인했다. 이날학장이임명, 또는취임 승인된 8개대학은 모두 지난해 전문대학에서 승격됐거나 신설된 대학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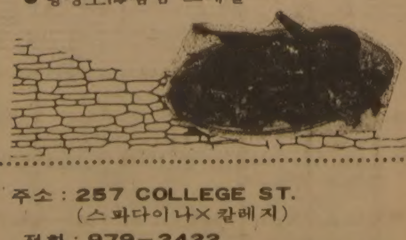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 가요, 문학, 영화, 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o건물및 그로서리 스토아
주매상 : 5천3백불 주5일 영업
토론토 북방 20분 운전거리
외국인 경영 3만5천불 다운
가게와 건물포함. 가격 : 13만8천불
oTake out Food 비지네스
Shopping mall 안에 있으며
운영이 간단하며 부부운영에 적합.
년매상 : 11만불 가격 : 5만5천불.
o도넛샵
주매상 : 4천불 일요일 닫으며
운영이 간편한 도매및 소매상
가격 : 6만5천불
o이외에 투자용 건물및 아파트등 다수 있음.
Member of Toronto Real Estate Board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푸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매상 : $5,500 아스킹 : $18,950 네트 : 년 $120,000
렌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도나스 샾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만5천달러(토타리오 인컴 넬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햄버거 샾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京華樓
(경화루)
PEKING— RESTAURANT
※전통적인 맨다린 음식
※특별 : 북경오리 음식
* 겨울 스페샬(Peking Duck & Firepot)
●진미의 해산물 요리
●국수, 야채전문
●항상上海점심 스페샬



주소 : 257 COLLEGE ST.
(스파다이나×칼레지)
전화 : 979-2422
영업시간 : 11 : 30A. M.~10 : 00P. M.
(매주 월요일은 문닫음)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 6548
이영두, 이전하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캐나다 외환은행
☎ : 364 : 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 1140
(KING × YORK)

자동차수리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라지에타 개스탱크 · 히터 ·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 · 1976;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이학, 김한호
☎ : (B) 532 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824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점용)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자동차 매매

North York Chev. 김 병 권
7200 Yonge St. Thornhill
☎ : 881－5000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장 의 사

장 의 사 (R. 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카펫 · 카텐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보 험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김 종 조 종합보험 ☎537－7200

임페리얼 Life (김 홍 량) ☎482－0166

불 교

선 련 사 ☎ : 532－3491
46 Gwynne Ave.

불 광 사 ☎ : 223－9152
288 Hownslow Ave.

대 각 사 ☎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Big Seven
678 Bloor St. W. ☎530－0523

Mister Oh for Men
☎ : 964－2606, 869－0589, 275－2187

건축 · 설계

K C ENGINEERING INC ☎ : (416) 624－4319
COMPLETE BUILDING DESIGN & PROJECT MANAGEMENT
건축설계, 공사감독
공사견적, K. C CHUNG P. ENG
STRUCTURAL ENGINEER

신용조합

천주교회 신용조합
941 DUNDAS ST. W. TOR. ONT. M6J 1W4
☎ : 363－0097

한 인 신 용 조 합
641A Bloor St. W. (2nd Fl.) Tor. Ont. M6G 1L1
☎ : 533－9387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이 경 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 : 766－5639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3－7300 MISSISS.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Chung's Accounting 정 필 주
• Tax Return, Planning
전 C. A. Firm Accountant ☎ : 661－1819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267－2292

쇼햄한글학교
☎663－1178

김용순 무용연구소
☎924－3905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스 포 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MUNAMI TROPHY & SPORT
•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요일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 : 298－3584

약 국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 : 368－2746
조 남 오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죄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 C. I. C. R. 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신비의 생 약 "알로베라" 판매 정 효 기
가정 상비약으로 필수
4020 Dundas St. W. ☎ : 248－1362(R), 769－4347(B)

인 쇄

윌슨인쇄소 ☎ : 638－6919 임 윤 식
904 Wilson Ave. Downs view, Ont. M3K 1E7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746－0675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 주 보 • 명 함 • 청첩장 • 책 자
6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493－8894. 윤 종 대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 : 535－3520 곽 호 중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미 용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 : 248－2957(B) 247－6875(R)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 렌 미 용 실 김 조 자
377 Albion Rd. 한국식품 서부지점에서 동쪽에 위치
☎ : 741－7829

시계 · 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 × 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流星의 賦 <322>

李炳注 作
李友範 畵

虛實의 時間 ⑲

일을 먼저 연 것은 어머니였다.

『계남아, 넌 이곳을 떠야하겠단』

계남은 고개를 끄덕이고만 있었다.

『효도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노릇으로 안다. 그런데 네가 이곳에 있으니 조금도 마음이 편치 않구나』

어머니의 말은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 하실꺼다』

어머니는 간신히 말을 보탰다.

『제가 이곳을 떠나면 어머니도 절 따라 가시겠읍니까』

계남이 이렇게 묻자 어머니는

『생각해 보잔』

고 했다.

그 언젠가는 계남이 어머니를 딴곳으로 모시려 했을 때 어머닌 완강하게 반대했다.

『네 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단』 는 것이 그때의 이유였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해 보잔』 고 했다.

계남은 그 동안의 어머니의 신고가 어떠했겠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 이곳을 같이 떠납시다. 아버지도 용서해주실 것으로 압니다』

보일듯 말듯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이 지난 후 계남은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아버지 자수는 계남이 좌정하자마자 말했다.

『네 마음은 잘 알겠다』

어떻게 아느냐고 물을 필요도 없었다.

자수의 말이 이어졌다.

『네 대모(大母)를 용서해라. 그러나 넌 이 곳을 떠

나야 하겠다. 네가 여게 있다가 축간에 불이 나도 네 탓, 망아지가 병에 걸려도 네 탓으로 될 것이 분명하다. 애비로선 할 말이 아니지만 어쩔 도리가 없구나』

자수는 아들 계남의 마음을 환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계남이 무어라 말할 수 없어 앉아있는데 자수의 얘기가 있었다.

『한고조(漢高祖)가 아직 야(野)에 있을때 그를 형수로부터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사실을 읽어보면 천대를 받은 사람보다 천대를 한 사람이 불쌍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천대는 일시적인 것이고 견디고 참는 마음은 사람을 크게 하느니라. 하지만 내가 널 떠나라고 하는 것은 네가 견디고 참지 못할까봐서가 아니고, 네가 여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생겨날 갖가지 화(禍) 때문이다. 그러나 저러나 알고 싶다. 네가 고향을 뜰 작정을 한 것은 무슨 때문인가. 네 대모의 하대는 내가 알고 있는 터이다만 그 밖에 또 이유라도 있는가』

『저 때문에 홍씨집안이 망해서야 되겠읍니까』

『역시 그 말이 네 가슴에 걸려있는 것이로구나. 나도 그 말을 들었을때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참는다는 것은 참지 못할 것을 견디는 노릇을 말한다. 네가 고향을 떠나는 것은 좋지만 가슴에 맺힌 그 찌꺼기는 말끔히 없애고 떠나야 할것이니라』

『말씀 잘 알겠읍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떠날 때 어머니를 모시고 가도 되겠읍니까』

계남으로선 겨우 꺼낸 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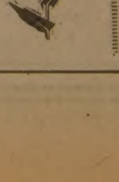
자수는 돌연 심각한 표정으로 되며 입맛을 다셨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놀드「戰火」그랑프리

佛세자르賞 시상식

제7회 세자르賞 그랑프리(최우수작품상)는 진·잭스·아놀드의 「戰火」가 차지했으며 폴란드의 안드레즈·와즈다(鐵人·대리석人間) 감독은 특별상을 수상했다. 28일밤 파리의 샤틀·프레알 콘서트홀에서 거행된 시상식에서는 또 현재 수감중인 소련의 세르지·파라드자노프감독에게 열렬한 박수로 격려를 보냈다.



최우수 女優주연상은 이자벨·아드니앙(領地)에게, 최우수남우주연상은 미셸·세롤(파수병)에게 각각 돌아갔으며 최우수감독상은 진·잭스·아놀드(戰火)가 수상했다. 외국영화상은 「코끼리人間」에게돌아갔다. 【AP】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Donuts Shop에서 풀타임 오전 8 : 00～오후 4 : 30
일하실 여자분 구함. 직접내방 바람.
(영×칼레지 써브웨이 안)

Full Time일하실 여자 Cashier구함
유경험자에 한함
☎ : 598－2546(다운타운지역)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2명구함
☎368－2819 (Mr. Wong)

풀타임 여자 캐쉬어 구함
☎ : 438－1528(스카보로지역)

경험있는 캐쉬어 구함
(오후10시～아침8시)
☎ : 691－6768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실 여자분
캐쉬어 구함(12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
다운타운지역 ☎921－0624

테크닉 사원 모집
하드 웨어에서 2년이상 경험있으신분 구함
▪급료 우대함 ▪Permanent Job.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608 Bloor St. W. (Bloor×Bathurst Hardware Co.)

Kim's Beauty Salon
☎ : 532－7094
(1)Manager
(2)Hair Stylist Net : $1,500/Mon.

Donuts Shop(11시P·M～7A·M.)
☎ : 743－3822, 222－3877
키프링 × 알덴

3명의 아이들을 돌봐줄 하우스키퍼 구함.
베다스트와 휜치근방. 영어해야 함.
☎ : 665－4122 OR 536－7169

최석봉 씨를
양찬국씨가 찾습니다.
샌프란시스코(미국)
☎ : 1－415－582－3124, 1－415－581－4211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 & 밀크 스토아 급매.
주매상 : $3,500～$4,000
렌트 : $525 (월) 비데오 머신 있음.
아스킹 : $25,000 + 스탁
관심있으신 분 연락 바람.
443 Kerr St. Oakville. ☎ : 844－6741

외국인이 경영하는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 : 463－3893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크리닝을 겸해
할수 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베더스트×로렌스)
오전 10시～오후 8시 ☎ : 783－0134

후렌차이스 매니저 구함.
가게를 매매할 수 도 있음.
☎ : 759－9224(Ellesmere×Midland)

성업중인 수퍼마켓 매매
냉동식품, 우유제품, 그로서리, 야채류,
과일 그리고 고기(육류)등 취급.
동쪽끝 지역
☎ : 466－8283 (Mr. Mett)

기프트 스토아 매매
짧은시간과 권리금 없고 년매상 : $10만
Fixture+스탁 ☎ 656-6660 12-5p.m.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3,000 렌트 : $515 (전기포함)
☎ : 694－7848

Equipment for Sale
★Shelves for 700 Sq.ft.., 3개의 Frozen food or 아이스크림 캐비넷, 6ft.와 5ft.의 Sliding door냉장고, 아크릴사인(간판), 그외 여러가지.
★ East York에 위치한 900 Sq.ft. Space와 3베드룸 렌트 합니다.
TTC 정거장 바로앞에 위치해 있음.
☎ : 851－3866, 851－1731(저녁7시 이후)

Store for Sale 또는 매니저 구함.
주매상 : $3,500 렌트 : $650
리스 : 4년+5년 Option
현금다운페이 : $7,000(매니저의 경우 2,000Deposit)
☎ : 1－(514)637－6444 (몬트리올 지역)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던다스×더프린)
☎ : 536－3826 7 : 00PM까지
656－4686 7 : 00PM이후

Convenience Store (900 Sq.ft.)
년매상 : $300,000 (Midland × St.Clair)
☎ : 267－8747(Tom Sherman)

가게와 아파트 포함한 건물매매
교통이 번화한 Parkdale지역
현대식 건물 1베드룸과 2베드룸
몰게지 : $71,000(11.25%)
아스킹 : $129,900
Call : Neville Lehrer
☎ : 763－5555, 769－0531
R. Cholkan Co. Ltd. Realtor.

바쁜지역의 건물포함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연매상 : $200,000
Call Cliff or Joe, ☎ : 763－5161
Cimerman Real Estate LTD.

Royal Trust Co.
(1)쾌적한 4베드룸 포함한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가게, 관광중심지역
년매상 : Over $400,000
넓이 : 2200Sq. ft. 아스킹 : $149,000+스탁

(1)작은 도시에있는 Convenience Store
매우 깨끗하고 전망좋은 모퉁이에 위치한
4베드룸 아파트(2개의 차고)
아스킹 : $114,900+스탁
가족끼리 운영할수있는 좋은기회.

(3)21 Unit Motel.
면허있는 식당과 별개의 카테지(3베드룸 벽돌집)
Color T.V. 냉·난방장치 갖춤.
평균 객실점유율 : 60%
년매상 : $157,000 아스킹 : $550,000
Royal Trust Coopertaion of Canaba, Realtor.

107 Mississauga St. Orillia. Ont.
Mr. Irven DeGraw.
(B)705－325－6193, (R)705－325－6069

과일가게에서 필요한 장비 일절 팝니다.
야채 쿨러, 밀크쿨러, 후로즌, 저울, 과일선반
☎ : 485－9419

벡커 스토아 급매
☎ : 535－3550

방세놓음(월 : $170 독신자원함)
Pape Subway 에서 1블락거리
☎ : 282－0236, 466－3764

도 서 판 매

한국전집
광복20년(전25권), 한국인물사(전10권)
삼국지(전6권), 한국의 가정요리(4권)
새생활 백과(전8권), 토지(전6권)등
☎ : 690－2216(Mr. 최)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식 품 점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 274－5401

고려식품 680 Bloor St. W. Tor.
▪ 주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 : 531－2242

동양식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삼복식품 ☎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주7일영업, 배달합니다.

제일식품 (구 단풍식품)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서울식품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 field Rd.
☎ : 743－827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서부 Finch West Mall (Finch & Weston) 745－5555

Hi－Fi House (고급 전축 스테레오전문)
4544 Dufferin #19(더프린×휜치) ☎633－2332

Stereo King ☎:766－4770
o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o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o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킬×던다스)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시설및 수리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주소 : 2432 Eglinton Av. E. Scarboro(at Kennedy)
☎ : 759－8512 최 영 호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 까지 : 낮12시～새벽 1 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 :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 · 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리아하우스
666 Bloor St. W.
☎ : 536－8666

동궁 (홍콩식 중화요리 전문)
영업시간 월～금 오전11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토 오후 4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일 오후 4시30분부터～ 밤10시까지
1416 VICTORIA PARK AV. (South of Eglinton) 757－6334

한국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서울하우스
615 Bloor St. W.
☎ : 532－0602

클링턴하우스
693 Bloor St. W.
☎ : 535－9541 김 영규

거구장 5 Bethridge Rd.
☎ : 742－1618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여 행 사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천우여행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Tor. Ont. M5A 1A1
☎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 : 221－5441
(냉동기 시설및 수리) 미스타 이

운전학교

오행곤 운전학교
423－3035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양 장 점

샘터의 상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우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매매 부동산

A. E. LEPAGE (우덕이)
☎ : 741－9170

CANADA PERMANENT (황순일)
☎ : 481－3443

이대환 부동산 ☎ : 535－1251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웅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황용현 부동산
☎ : 361－0880

ROYAL TRUST (유복영)
☎ : 762－8255 West 지역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1982 MISS KOREA

미스KOREA캐나다

●후라이보이 곽규석

원맨쇼의 제1인자
익살과 재치의 명사회

●만능연예인 피세영

연극배우·성우·디스크쟈키

특별출연!!

이숙

●인기절정의 가수

달콤한 멜로디
향수어린 정서

서유미

●히트송"눈이내리네"

71년도 한국가요 신인가수상 수상
뉴욕연예계서 활약중인 육체파 가수

●격정적 선율의 신나는6인조악단

=조상국(드럼·섹스폰)·조경희(베이스)· 박정자(기타)·
전미숙(키보드)·김경분(올갠)· 장남홍(싱거)

●응모자격 :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혼 한국계 여성
●연 령 : 만17세부터 만25세까지
●신청서류 : (1)신청서 1매 (2)사진 2매(명함판)
●제 출 처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신청마감 : 1982년 4월10일 하오 5 시
●의 상 : 수영복·이브닝드레스·한 복

●문 의 처 : 한국일보사 (416) 533-2361~4
●기 타 : (1)미스코리아 "진"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미스코리아 전국결선대회에 출전하여야 함.
(2)입상자 전원은 82년도 캐라반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
●입 장 료 : $30.00(디너·쇼, 댄스포함)

일시 : 1982년4월24일(토) 하오6시
곳 : 다운타운 Holiday Inn (토론토 시청뒤)

주최 : 토론토지구한인회
후원 : 한국일보사

1982년도 MISS KOREA OF CANADA

참 가 신 청 서

1. 성 명 :
2. 주 소 :
3. 전 화 :
4. 생년월일 :
5. 특 기 :
6. 학 력(최종학교명) :
7. 직 업 :
8. 신 장 : 인치
체 중 : LBS
바 스 트 : 인치
웨이스트 : 인치
히 프 : 인치

2ND CLASS MAIL NO. 5248